

Sulwhasoo

VOL.88 NOVEMBER/DECEMBER 2018

Sulwhasoo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8





Gold Peacock / 류지안
자개, 메탈 / 2018

아름답게 노니는 공작새, 화사하게 피어난 크고 작은 꽃들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작은 새들이 영롱한 자개 장식으로 빛나고 있다. 화려하지만 기품이 넘치고, 전통 기법을 사용했지만 세련되기 그치지 않다. 오색찬란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오래된 자개장을 다시 디자인한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린다. 지금의 생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자개 공예가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치는 공작새처럼 부활하는 듯하다.

류지안 작가가 다시금 불붙인 자개 공예의 아름다움은 깊은 고민을 통해 빛을 발했다. 어머니의 혼수였거나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자개장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위해 'Timeless Project'를 통해 리폼을 하는 것이다. 세월을 켜켜이 덧입어 원래의 빛을 잃어버린 자개를 깎고 닦아 본연의 빛을 찾아주고, 현대의 공간과 쓰임새에 맞춰 모던한 가구로 거듭는다. 자개장과 함께한 추억의 빛까지 고스란히 담을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다.

고려시대부터 천 년의 세월을 찬란하게 이어온 자개 공예는 전복이나 진주 조개 껍질 속에 감춰진 빛을 꺼내 세밀하게 자르고 다듬어, 옷칠로 한 땀 한 땀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고된 일이다. 자개 공예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인고의 결을 통해 빛이 스미기 때문이다.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껴안은 류지안 작가 덕분에 먼 과거로부터 온 자개의 빛은 밝은 미래를 꿈꾼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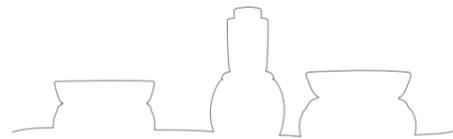
Beautiful peacocks, colorful flowers in full bloom, and gracefully winging small birds are shining in the lucid mother-of-pearl ornaments. They are glamorous yet graceful, and made in the traditional way, yet still appearing sophisticated. The ornaments in different colors have made the cabinet look more fascinating. It was even surprised that it was redesigned from an old mother-of-pearl cabinet. It seems that the mother-of-pearl craft, which was once neglected because it did not fit the modern living space, has been revived as a peacock that spreads its colorful tail.

The beauty of the mother-of-pearl craft has been re-lighted by artist Ji An Ryoo's deep contemplation. The 'Timeless Project' has renovated mother-of-pearl cabinets that have been handed down by mothers or grandmothers. The natural radiance of the mother-of-pearl is restored by shaving and wiping them to make the cabinet look modern for contemporary spaces and uses. It is meaningful because the memories of the cabinets can still be cherished.

The mother-of-pearl craft has succeeded for a millennium, since the Goryeo Dynasty. It requires an arduous, time-consuming process of trimming, refining, and lacquering to bring out the hidden luster in the shells of abalone or pearls. Mother-of-pearl craft remains beautiful because its shine comes from the layers of endeavors. Thanks to artist Ji An Ryoo, who has volunteered to take this path, the light of the mother-of-pearl from the ancient past can dream of a bright future.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8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려주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8,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88 NOVEMBER/DECEMBER 2018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일·2018년 11월 1일(통권 제88호)
발행처·인세홍 편집인·강병연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은주, 이슬)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디자인·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인소연 디자인·이영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펼 치 다

- 08
설화지혜
달빛처럼 옥빛처럼 환한 그 얼굴
- 12
피부 섬기기
다섯 가지 향으로 완성한 홀리스틱 뷰티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운명처럼 빛을 새기다
- 22
공간미감
백자가 꾸는 꿈
- 28
건너다
벽차오르는 아름다움이 깃들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나는 오직 현재에 존재한다
- 44
어우러지다
고이고이 피어난 온화한 공간
- 50
설화풍경
깊은 기억의 자리에 닿다
- 54
설화보감
그윽하고 고운 금빛 열매
- 60
아름다운 기행
여행이 건네주는
“Happy Holiday & Happy New year!”
- 66
설화수를 말하다
오색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다
- 72
설화공간
설화수 헤리티지를 만나는 아름다운 겨울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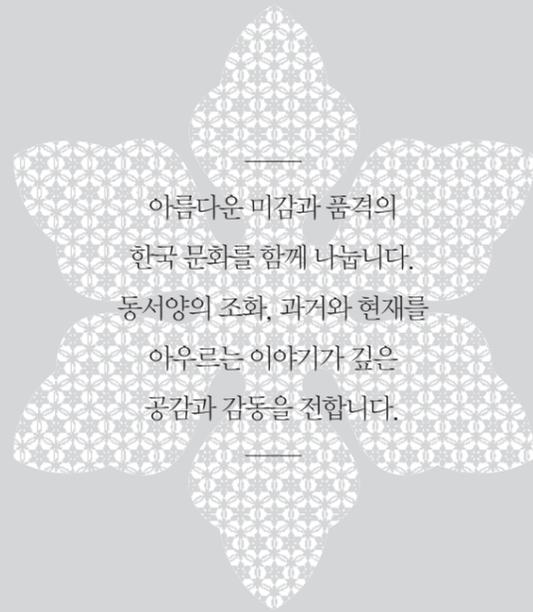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고마운 마음을 가장 고귀한 정성으로
- 82
한국의 멋
편병, 봉긋하면서 납작한 미묘함
- 84
설화애장
궁궐을 고치고 아름다움을 담은 일
- 86
읽다
경이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금빛 테마파크
- 92
물 단장
복된 마음으로 새긴 우리 무늬



- 94
프로덕트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달빛처럼 옥빛처럼 환한 그 얼굴 A Face that is as Bright as Moonlight and Jade

조선시대 미인도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우아하고 섬세한 곡선과 함께 달빛처럼 환한 미인의 얼굴빛이 백미를 이룬다. 자연스럽고 환한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아름다움의 척도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건강한 이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빛이 감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아도 기품 있게 빛나는 피부. 얼굴의 빛깔, 안색은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이자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금보다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 모두가 가진 소망일 것이다. 한창 인생의 절정기에 터져 나오는 빛나는 생기를, 오래오래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아름다움의 가장 커다란 원천은 건강함일 터이다.

예부터 전해지는 지혜를 살펴보면 선인들이 몸, 신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자연과 통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것이다. 태양이 공기를 데우고 바람이 불어 공기가 이동하며 그것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는 순환처럼, 몸 역시 모든 것이 잘 순환해야 건강하다. <동의보감>에서 피부가 가장 바깥, 표층을 지배하지만 동시에 인체 내부와 끊임없이 소통한다고 보고 있다. 인체 내부는 오장육부가 중심이 되어 인체의 정기를 담당하고, 밖으로 피부

A healthy face exudes natural radiance. The skin shines gracefully, even without bright lighting or heavy makeup. The radiance or the complexion of your face is a definite factor of beauty and an indicator of health.

For sure, everyone desires to become more beautiful,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Then, how is it possible to maintain the radiant vitality that bursts in the prime of your life as long as you desire? The major source of beauty is health.

Through the wisdom from the past, you could learn that ancestors perceived the human body as a miniature of the Universe. Your body is connected to Mother Nature, and is actually one with it in essence. As the sun heats the air and the wind moves it to make rain that wets the land, your body is only healthy when everything is circulating well.

According to <Donguibogam>, the skin, the outermost layer of the body, is constantly communicating with the rest of the parts inside the human body. The internal organs control



연화문 매병 캔들은 Nooby 해브빈 서울, 거북 무늬 나전옷칠 미니 경대는 아리자만, 꽃 브로치와 꽃이 그려진 은색 합은 아원공방 삼창점, 꽃이 그려진 은색 합은 이기하 작가, 백자 오브제는 오선주 작가, 연보라색 반지와 은매화 귀걸이는 아원공방 삼창점, 브라스 반침의 비볼램프는 빛흙, 민트색 벽 컬러 '스프링 필드(DEF619)'는 던에드워드 논현점

위의 경락과 소통하며 서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는 기운이 몸 전체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얼굴은 이목구비가 한의학에서 오장과 연계되어 기운을 드러내는 곳이다. 장부에 이상이 생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미나 피부 트러블이 생겨 그 증상이 얼굴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얼굴의 안색, 피부를 살펴보면 몸 안의 상태까지 유추할 수 있고, 건강함을 지킬 수도 있다. 이는 아름다운 피부가 그 사람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함, 더 나아가 기품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부의 빛깔을 환하게 하는 여러 자연 재료들이 있다. 황금黃芩, 살구씨 오일(행인유), 금은화金銀花, 백지白芷와 고본藜本 등은 안색을 좋아지게 하는 단방에 자주 사용되었다. 궁중의 여인들은 이 재료를 즐겨 음복하거나 외용제 형태로 만들어 밤낮으로 피부를 가꾸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화수의 에빛크림은 황금과 살구씨 오일, 금은화를 재료로 얼굴의 아름다운 빛을 되살린다. 황금 추출물이 멜라닌의 이동을 막아 어두운 얼굴을 밝게 하고 금은화 추출물은 피부 결을 더욱 촉촉하게 채워 매끈한 결을 구현한다. 그리고 살구씨 오일이 피부 장벽을 단단히 만들어 빛나고 윤택한 피부를 완성한다. 가볍지만 촉촉하고, 품격 있는 윤기까지 구현하는 에빛크림은 덧바르는 횟수나 바르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품고 있다. 달처럼 빛나는 아름다움을 꿈꾸는, 아마도 영원할 그 엄원에 세심하게 응답하는 설화수의 정성이다. S

the energy in the body, and are interconnected to the meridians on the skin. Therefore, the energy that appears on the surface of the skin tells you about the condition of your body. The face, in particular, has the eyes, nose, mouth, and ears that are interrelated to the five internal organs in Korean medicine.

When there are problems in the internal organs or you are mentally stressed, symptoms appear on the face as age spots or skin troubles. Therefore, you could assume the condition of the body by examining the complexion and the skin of the face, and find ways to stay healthy. This means that beautiful skin becomes the icon of a sound body and mind, and even dignity.

There are different natural ingredients that can brighten the complexion of your skin. Skullcap root extract, apricot kernel oil, honeysuckle flower extract, Angelica dahurica, and Angelica tenuissima were often used in traditional medicine to clear the skin complexion. Royal women partook these ingredients, or applied them on the surface of the skin day and night as a skin care method.

Based on this tradition, Sulwhasoo's Luminature Glow Cream is formulated with skullcap root extract, apricot kernel oil, and honeysuckle flower extract to restore the beautiful radiance of the face. The skullcap root extracts brighten the dark face by inhibiting the transfer of melanin, while the honeysuckle flower extracts densify the texture for smoother skin. Also, the apricot kernel oil firms the skin barriers to complete the radiance of the refined skin. The light yet moisturizing Luminature Glow Cream delivers various effects based on the number of layers or the places of applying areas. It is Sulwhasoo's devoted response to the eternal desire to be as beautiful and radiant as the moonlight.

에빛크림

피부의 빛, 결, 윤기를 케어해 품격 있는 기색을 선사하는 뷰티 크림
열과 노폐물을 억제하는 황금이 맑은 피부 빛을 선사하고, 금은화 추출물은 수분을 채워 피부를 매끈하게 정돈한다. 살구씨 오일은 자연스러운 윤기를 부여해 건강하고 기품 있는 피부로 관리한다. 50ml+20ml 세트 15만원대, 20ml 5만원대



백자 함은 이예린 작가, 블루 미니 접시는 김남희 작가 by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새 모양 장식의 빈자는 아원공방 삼창점 꽃과 나비 나전 옷칠 함은 이리지만 꽃 장식 유리 문진은 H&M 베이저색 바닥 '텐 템테이션(DES206)'은 던에드워드 논현점

다섯 가지 향기로 완성한 홀리스틱 뷰티 Complete Holistic Beauty with Five Fragrances

마음과 영혼을 달래주는 좋은 향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피어낸다.
설화수가 자연에서 찾은 다섯 가지 향기를 깊은 심호흡으로 들이켜면 마음은 고요하고 피부는 생기 넘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고운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득 채운다. 맑은 기분을 갖게 해주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준다. 예로부터 향기가 품은 에너지와 마음의 치유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도 여러 곳에 걸쳐서 나온다. 우리 선조는 마음을 다스려 몸과 삶을 다스리고자 했으며 이런 이치를 담아 전통 향제법을 남겼다. 설화수는 이러한 전통 향제법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향으로 홀리스틱 뷰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설화수만의 해석으로 향서香書를 기록하고 다섯 가지 향을 선보인다. 한방 원료와 나무, 꽃, 뿌리, 열매, 빛 등 자연이 품은 향기를 근원에 두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향을 찾아냈다. 푸른 숲길의 청량한 기운, 봄을 알리는 하얀 매화의 은은한 향기, 찬란한 빛의 온화한 내음, 붉은 열매의 싱그러움과 땅속 뿌리의 깊은 에너지를 담은 설화수 다섯 가지의 향은 내면의 감성을 일깨우고 한 장 한 장 향을 펼치고 겹칠 때마다 참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A fine fragrance is invisible to the eye, but it fills your heart. It clears up your mind, and restores the balance of your body and mind. The energy of fragrance to heal the body and mind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olden times, and it is even mentioned in <Donguibogam>. Korean ancestors attempted to comfort the mind to strengthen the body and came up with traditional perfuming methods based on it. Sulwhasoo has modernly reinterpreted the wisdom behind those traditional methods to achieve Holistic Beauty. With Sulwhasoo's unique interpretation, 'HYANG-SEO' has recorded five special fragrances. Sulwhasoo's five fragrances cherish the fresh energy of green woods, the subtle fragrance of white plum blossoms to announce the arrival of the spring, the gentle scent of splendid light, the freshness of red berries, and the deep energy of roots to awaken inner sentiments and realize true harmony and balance as you discover each layer of the scent.

Sulwhasoo's five fragrances, which comfort the mind with the scent of nature, include Forest Morning, Gentle Blossom, First Peace, Capturing Moment, and Inner Fullness. First, 'Forest Morning' calms the mind, and awakens the senses with the invigorating fragrance of green woods. 'Gentle Blossom' clears and purifies your feelings with the subtle scent of plum blossoms that bloom so gracefully to signify the arrival of spring. 'First Peace' delicately awakens the



유기 포인트 볼은 모두 낫담 제품.



여은오일 컬렉션

아시아의 숲과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된 동양적이고 아름다운 설화수의 5대지향을 담은 밸런스 오일이다. 감정의 변화와 컨디션에 따라 다섯 가지 향을 골라 쓰며 피부와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아름답게 가꿔준다. 피부에 영양과 보습감을 주며, 항산화 효능이 있는 해송자유와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건조한 피부를 건강하고 윤기 있게 케어한다.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은 라이트 제형으로 가볍게 흡수되고 홍서지향과 흑여지향을 리치 제형으로 골라서 사용 가능하며 두 가지 제형 모두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유수분 밸런스를 찾아준다.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홍서지향, 흑여지향 모두 20ml 8만원 * 11월 출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설화수의 5대지향은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홍서지향, 흑여지향으로 구분된다. 먼저 '청아지향'은 푸른 나무와 숲을 거니는 듯한 청량한 향기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감각을 일깨워준다. '백화지향'은 봄을 알리며 우아한 자태로 피어나는 매화의 은은한 향으로 기분을 맑게 정화해준다. '윤조지향'은 오리엔탈 허브 향과 빛의 온화함, 공기의 청명함을 담아 생명의 감각을 섬세하게 일깨우고, '홍서지향'은 햇살을 가득 품고 맺힌 살구와 복분자 열매처럼 싱그러운 생기 넘치는 향이 기분을 북돋아준다. 마지막으로 '흑여지향'은 뿌리에 응축된 영양을 전하는 인삼과 생강 향이 따뜻한 활력을 선사한다.

신비롭고 고요하며 생동감 넘치는 설화수의 5대지향은 11월에 출시되는 여은오일에 담겨 마음의 균형은 물론 흐트러진 피부를 되살리는 다섯 가지 오리엔탈 밸런스 오일로 만날 수 있다. 한방에서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로 설명하는 7정七情의 변화를 음양의 원리로 다스려 몸과 마음, 피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컨디션에 따라 향을 골라 사용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풍부한 영양과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는 설화수만의 캐리어 오일로 피부에 윤기를 부여하는 여은오일 5대지향 컬렉션으로 맑고 고귀한 영혼의 향기를 간직해보자. S

senses of life with the scents of oriental herbs, the warmth of light, and the purity of air, while 'Capturing Moment' invigorates your energy with the fresh, revitalizing scents of sun-filled apricots and Korean blackberry. Finally, 'Inner Fullness' delivers the warm energy of ginseng and ginger by diffusing the nutrition condensed in the roots.

Sulwhasoo's five fragrances, filled with wonder, calmness, and vitality, will be captured in Serenedivine Oil this November. The five oriental balancing oils will restore balance in your heart, and refine the skin. The change of seven spirits, which are used to describe human feelings in Korean Medicine, is controlled by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that benefit the body, mind, and skin. You could choose the right fragrance according to the condition to purify your body. Cherish the scent of clarity and nobility with the Five Fragrance Collection of Serenedivine Oil that rejuvenates the radiance of the skin as Sulwhasoo's original carrier oil for abundant nourishment and antioxidant effect.

**여은오일
사용법
How to Use
SERENEDIVINE
OIL**

Step 1

여은오일을 손바닥에 2~3방울 떨어뜨린 다음 양 손바닥을 비벼 고르게 문힌 뒤 양손을 코에 대고 3초간 향을 들이마신다.
Drop 2-3 drops of Serenedivine Oil on the palm, and rub palms to spread the oil evenly. Then cover your nose with your palms to inhale the scent deeply for 3 seconds.



Step 2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을 턱 끝으로 내리고 1초간 호흡을 멈춘다.
Take a deep breath, lower your hands to the bottom of the chin, and hold your breath for one second.



Step 3

들이마신 숨을 '후' 하고 2초간 뱉는다. 1~3번 동작을 3회 반복해 심신과 피부 상태를 편안하게 만든다.
Exhale for 2 seconds. Repeat steps 1-3 three times to comfort your body, mind, and skin.



Step 4

손에 있는 내용물이 깊이 흡수될 수 있도록 턱 → 볼 → 눈가 → 이마 순으로 꼭꼭 눌러서 마무리한다.
Gently press your chin, cheeks, eyes, and forehead for deep penetration of the oil through your palms.





운명처럼 빛을 새기다

Ryu Ji An

공예 디자이너 류지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시간을 잘게 쪼개 쓰는 류지안 작가는 실들이 없다. 개인적인 작품 활동과 브랜드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는 한국 자개 공예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싶어하고, 설치미술까지 자신의 영역에 포함시키려 든다. 그런 그의 '건전한 욕심'은 "인류 보편적 감성을 자극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란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소재와 기법이 주로 '자개'와 '옷칠'로 보입니다. 먼저 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구와 건축 등 인테리어 디자인 공부를 하던 뉴욕 유학 시절, 우연히 일본의 죽공예품 전시를 본 적이 있었죠. 자국의 전통공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그들의 뛰어난 역량을 보면서, 우리의 전통공예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우리 문화가 일본의 음식이나 예술품에 비해 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는 평소의 안타까움도 한몫했구요. 또 작가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죠.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자개, 옷칠이라는 소재를 탐구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작품 활동만 하는 것이라 아니라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2013년에 제 이름을 따서 론칭한 '아리지안(Arijian)'이란 브랜드는 이제 일정 부

It seems like you work mostly with 'mother-of-pearl' and 'lacquering.' First of all, I am curious as to how you got started on the craft. While I was studying Interior Design, mostly involving furniture and architecture, in New York, I happened to visit a bamboo craft exhibition from Japan. I saw how they excellently reinterpreted their traditional craft with a modern twist and I thought I should get to know more about Korean traditional craft. I was motivated by the fact that "Our culture is relatively less known to Americans than the Japanese food or artworks." I determined that I need designs that reflect the identity of Korea in order to be competitive as an artist. So I started exploring mother-of-pearl and lacquering when I returned to Korea.

I heard you are running your own brand in addition to the creative activities. In fact, it is not easy to work on two things at



자개는 바다가 선사한 보석과 같다. 원석을 다듬어야 귀한 보석이 탄생하듯 전복과 진주조개 껍질에서 얻은 자개도 정교한 세공을 거쳐야 신비한 빛을 발하고 진가를 발휘한다.



분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자개를 활용한 아트퍼니처와 오브제, 칠분을 이용한 그림 작업에 작가로서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올해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작품을 선보인 것도, 또 KCDF갤러리에서 가구 전시회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의 기획입니다. 제 이름 한자의 뜻을 풀면 '빛을 새기다'라는 의미거든요. 앞으로도 한국 자개의 영롱한 빛을 새기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이름과 작품의 소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셈이군요. 많은 전통공예 소재 중 자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자개는 보석과 같아요. 다이아몬드도 다듬어야 가치가 있듯 자개도 장인의 정교한 세공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신비한 빛을 내뿜고 진가를 발휘하죠. 특히나 제 작품 소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옛 자개장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희소가치와 클래식한 아름다움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남편이 가진 자개장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제가 자개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고요.

자신이 다른 작가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2010년 당시만 해도 자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가는 드물었죠. 해서 다른 작가와의 차별점을 얻

once. But I launched 'Arijian' in 2013 and I believe it is working pretty well. So I am now focusing on working as an artist who creates art furniture, objects, and lacquer powder using mother-of-pearl. That is the reason of my last creations in Paris, France in May and the following furniture exhibition at KCDF Gallery. My name means 'engraving light' in Chinese character. Just like my name, I want to continue engraving the lucid light of the Korean mother-of-pearl.

Your name has created harmony with the materials of your work. Is there a special reason why you chose mother-of-pearl among the many materials of traditional craft? Mother-of-pearl is like jewelry. Like diamond is only valuable when it is refined, mother-of-pearl can diffuse its marvelous lust and can secure its true value only when it is elaborately crafted by a master. The traditional mother-of-pearl cabinet, which is a material of my work, becomes more attractive over time with the addition of rare value and classical beauty. Another reason why I chose mother-of-pearl is my husband's particular affection for his mother-of-pearl cabinet even though he has never lived in Korea.

두에 두진 않았어요. 대신 기존의 전통 공예품이 갖고 있던 패턴에 변화를 주고, 저의 디자인 지향점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 파스텔 색조를 쓴다거나 꽃 한 송이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비워, 여백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디자인적 변화를 추구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런 시도가 인정을 받아 외교부나 청와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저의 작품을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하는 일이 잦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과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전통 자개장을 활용한 콘솔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작을 디자인 요소로 삼은 작품이었는데요.

각기 다른 프로젝트의 작품입니다. 콘솔은 현대의 생활 공간에 맞지 않아 고민이던 오래된 자개장을 제 시선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Timeless Project'의 결과물이에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끼시던 자개장을 버릴 수 없는 고객들이 제게 의뢰를 하면, 오래된 자개 본연의 빛을 찾아줌과 동시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콘솔이나 테이블, 캐비닛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 추억의 연장이고, 저에게는 사공간을 뛰어넘어 옛 장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옛 방식대로 세공할 수 있는 장인들이 사라진 지금, 굉장한 경험이 아닐 수 없어요.

What do you think makes you distinguished from other artists? When I started working as an artist in Korea back in 2010, only a few artists modernly reinterpreted mother-of-pearl. So I did not think about how it would distinguish me from other artists. Instead, I tried to create various patterns for the traditional craft and apply my design style. For example, I emphasized the beauty of negative space by using pastel colors or arranging nothing but a stem of flower. Thankfully, my attempts were acknowledged and some of the government offic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ven Cheongwadae(The Blue House), chose to give my pieces as gifts to delegates at foreign summits. I was able to collaborate with various multinational companies in Korea and abroad.

Two types of artworks are very impressive: one was a console inspired by the traditional mother-of-pearl cabinet and the other featured a peacock. They are two different projects. The console was the outcome of my 'Timeless Project,' which reinterpreted the old-fashioned mother-of-pearl cabinet that no longer fits the modern living space, in my own perspective and design.

공작이 등장하는 작품은 또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피콕 캐비닛(Peacock Cabinet)’은 워싱턴 D.C.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피콕 룸(The Peacock Room)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작품이에요. 공작이 동양에서 전통 문양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서양에서도 공작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친숙한 동물이자, 우아함을 상징하는 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개로 표현하면 오색의 화려한 꼬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빛깔을 연출하기 때문에 공작의 그 화려한 아름다움이 극대화할 거라 생각했죠.

아티스트는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가요?

한국의 전통공예, 그중에서도 자개 문화를 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벽 안에 갇히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외국에서도 호평받을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현재 꾸고 있는 저의 꿈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자개와 금속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소재,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연구 중이에요. 아트퍼니처뿐 아니라 여러 장르를 통하여 자개가 지닌 현대적 미감과 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Timeless Project’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피드백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분들의 시간을 이어주고 추억을 공유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느끼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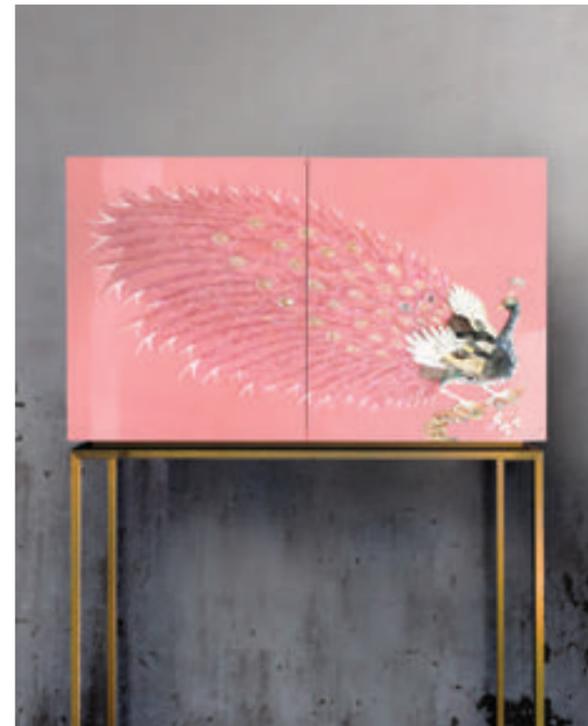
My clients come to me with the mother-of-pearl cabinets their mothers or grandmothers used to love and I restore the original lust of old mother-of-pearl or transform them into a new type of console, table, or cabinet with modern design factors. It is an extension of memory for my clients an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past craftsmen beyond time and space for me. It is a remarkable experience as there are no craftsmen who can apply the old method anymore.

Then which project features the peacock? The ‘Peacock Cabinet’ was inspired by the Peacock Room at Freer Gallery of Art in Washington D.C. I knew that the peacock was popular among the traditional patterns in Asia, but in western culture, too. It appeared in the Greek Mythology that many people are familiar and it also symbolizes elegance. With mother-of-pearl, I thought the colorful tails would diffuse different colors from different angles to maximize the glamorous beauty of peacocks.

Artists should create culture rather than following trends.

What kind of design do you want to create? I reinterpret the traditional craft of Korea, especially the mother-of-pearl craft, using my own perspective, but I do not want to be trapped in the walls of ‘Korean design.’ In other words, I want to create more universal designs that are widely accepted abroad. It is my dream to become a designer who reaches out to the universal sentimentality of mankind for the pursuit of beauty.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I am mostly working with mother-of-pearl and metal, but I am trying to adopt more variety in terms of materials and techniques. I want to show the possibility of modern aesthetics and use mother-of-pearl through various genres besides art furniture. While working on the ‘Timeless Project’ to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 gratefully met many people who gave me such encouraging feedback. It feels great when I am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their time of the past and present, and sharing their memories. Therefore, I will continue working on this project.



류지안 작가는 '아리자안'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전통이 깊은 자개와 옷칠 공예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해 실용적인 제품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Timeless project'을 통해 영롱한 빛을 심 없이 새기고 있다.

백자가 꾸는 꿈 Yanggu Porcelain Museum

양 구 백 자 박 물 관

화려한 기교의 청자에 비교하면 덩덤하고 수수해 보일지 몰라도,
백자에는 조선의 미감과 마음이 담겨 있다. 순도 높은 백토로 빚어낸 그 질박한 곡선 위에는
검소한 삶의 자세를 지향하던 옛사람의 정신이 흐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토의 정가운데에 위치하는 강원도 양구는 오랫동안 도자기 생산지로 이름난 고장이다. 특히 방산은 백자 문화 한가운데에서 오랜 역사를 만들어왔다. 바로 여기에 양구백자박물관이 있다.

조선시대 가장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진 백자는 백토로 만든다. 예부터 방산에는 좋은 백토가 가득했다. 방산이 백토가 훌륭하며 백자의 주요 생산지였다는 사실은 여러 고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구의 자기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숙종실록>, <영조실록>, <속대전> 등에도 관련 기록이 있다.

15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관영사기제조장官營沙器製造場인 광주분원은 왕실에 필요한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기관이었다. 방산은 이곳에 양질의 백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광주분원의 기술과 미의식을 오롯이 이어받았다. 양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려시대부터 20세기까지 600여 년 동안 백자 생산을 지속한 곳이기도 하다. 양구군 일대에서 약 40개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195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양구백자박물관은 2500평에 가까운 탁 트인 너른 공간에 백자 전시실과 체험실, 뮤지엄 숍, 전통 가마와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져 백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과 박물관 곳곳을 채운 아기자기한 백자 오브제는 편안하고 아늑한

Yanggu, Gangwon Province, which is right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North Korea, has been known for its porcelain products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Bangsan has been a historical location in the heart of white porcelain culture. Yanggu White Porcelain Museum is located right here.

White porcelain, which was made of white clay, was the most beloved and the most precious cre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Many old texts recorded that Bangsan was known for its quality of white clay, and was a major site of white porcelain production. <Sejong Sillok Jiriji> and <Sinjeungdonggukyeojiseungnam> state about Yanggu's porcelain production center, and other relevant records can be found in <Sukjong Sillok>, <Yeongjo Sillok>, and <Sokdaejeon>.

Gwangju Bunwon, which was a public porcelain plant established in Gwangju, Gyeonggi Province in the 15th century, created porcelain for the Royal Family. Bangsan supplied quality white clay to succeed Gwangju Bunwon's techniques and aesthetics. Yanggu is the only place in Korea to continue white porcelain production for nearly 600 years,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20th century. About 40 kilns have been found around Yanggu, and it seems that they were used until the 1950s.

Yanggu White Porcelain Museum is located in an open site nearly 8,200 square meters, where you could enjoy the history and beauty of white porcelain in different spaces – an exhibition hall, a museum shop, a traditional kiln, and a beautiful garden. Surrounded by mountains in all directions, the museum evokes a comfortable and cozy mood, along with the cute white porcelain objects throughout the area. The building also resembles the beauty of Bangsan's white porcelain, and its texture is more noticeable than its shape. The compacted earthen walls and the



양구 지역 백자가 전시된 130여 평의 전시실은 박물관의 소장 작품과 더불어 그 옛날 도자기를 만들던 도구나 영상 자료를 갖추어 백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양구백자박물관의 넓은 정원 곳곳에 놓인 유쾌하고 앙증맞은 백자 오브제는 양구의 아름다운 풍광 질감이 도드라지는 현대적 감각의 건물과 어우러져 하나가 된다.

정서를 만들어낸다. 방산백자의 질박한 감성을 담은 건물은 형태보다 그 질료에 더욱 눈이 간다. 다짐흙벽과 검은색 콘크리트는 건축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필요한 구법이라는 점에서 도자기의 생산 과정과 닮았다. 건물 곁에 유약의 원료로 쓰이는 느릅나무와 물푸레나무를 심은 것도 도자기와 건축이 만나는 지점이다.

양구 지역의 백자가 전시된 130여 평의 전시실은 양구백자박물관의 소장품과 도침, 갑발 등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영상물이 양구와 도자기의 역사, 백자의 흐름을 알려준다. 담백한 절제의 철학을 가진 백자는 수백 년 전을 살던 이름 모를 이들의 세련된 감각과 그 생활을 상상하게 한다. 군더더기 없이 균형이 잡힌, 정성이 담긴 문양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려냈던 것일까? 긴 세월 동안 전해지는 옛 백자와 함께 동시대 작가가 내놓은 새로운 세대의 백자를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것 역시 흥미로운 경험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의 체험관에서는 백자 제작에 참여해볼 수 있다. 전기 가마와 가스 가마, 장작 가마를 갖추고 야외와 실내 모두에서 체험이 이루어진다. 흙을 만드는 방법부터 성형, 가마에 구워 자기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손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전통 가마의 규모는 막연한 예상보다 훨씬 컸다. 가마 곁에 빼곡하게 쌓아놓은 장작이 이루는 벽을 보며 엄청난 뜨거움을 견디어 단단한 그릇이 되는 과정을 다시 곱씹어본다.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양구에서 만난 백자는 자연을 닮았고 사람을 닮았다. 정확하게 자연의 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스며들어 있다. 그 덕은 아름다움이고, 단단함이며, 비어 있어 비로소 생겨나는 수많은 가능성이다. 곱고 고운 백토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감돈다. S

양구백자박물관

주소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관람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국가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관람 가능) 1월 1일

설날 오전 추석 오전

문의 033-480-2664

홈페이지 www.yanggum.or.kr

체험 프로그램

초벌 구이에 그림 그리기 - 양구 백토를

이용하여 머그컵, 접시, 시계 등을

성형하여 초벌한 위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양구 백토로 작품 만들기 - 양구 백토를

이용하여 코일링, 핀칭, 물레 성형 등

원하는 체험 학습으로 진행

black concrete architecturally require a complicated process of building and maintaining, just like the process of porcelain-making. Elm trees and Fraxinus rhynchophylla trees around the building, which are used to make the glaze, also bring porcelain close to the architecture.

The exhibition hall, which is about 430 square meters in size, displays the white porcelain of the Yanggu area along with the collections of Yanggu White Porcelain Museum and the porcelain-making tools, such as Dochim and Gapbal. The videos playing in the background explain the history of Yanggu and the porcelain, and the flow of white porcelain. It is also interesting to appreciate the old white porcelain along with the new white porcelain created by contemporary artists at the same time. At Yanggu White Porcelain Museum's experience hall, you could make your own white porcelain. There are electric kilns, gas kilns, and fire kilns on which you could try making porcelain outdoors and indoors. It is a uniqu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entire process of porcelain-making, from shaping the clay to firing it in the kiln. The traditional kiln is much bigger than you could vaguely imagine. A wall of firing wood piled by the kiln shows the process of how the clay endures enormous heat to turn into a durable vessel.

The white porcelain you see in the beautiful scenery of Yanggu resembles nature and its people. It represents the people's desire to discover the virtue of nature. Such virtue includes beauty, durability, and the countless possibilities created through emptying. The texture of the fine and soft white clay still lingers at the fingertip.

벽차오르는 아름다움이 깃들다 Cherishing Overwhelming Beauty

눈부신 해변과 매력적인 풍광, 다채로운 경험으로
완벽한 힐링 여행을 선사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푸켓에서
실화수가 전하는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푸켓 1호 실화수 매장이자 태국의 20호 매장이 문을 열어 벽찬 환영을 받고 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꿈꾸던 지상낙원을 누리다

태국에서 가장 큰 섬, 에메랄드 빛 바다와 눈부신 해변이 펼쳐져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는 푸켓은 꿈꾸던 여행의 모든 것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푸켓 서해안을 따라 60킬로미터에 이르는 안다만해의 그림 같은 해변은 오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풍경이다. 특히 건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푸켓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적기다. 바다는 물론 높은 산과 절벽, 정글과 호수의 절경 등 천혜의 자연은 푸켓이 품은 찬란한 보석이다. 롤러코스터만큼 빠른 스피드보트를 타고 푸켓의 보석들을 둘러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곳은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피피섬이다. 이곳에 속해 있는 마야베이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더 비치>에서 신비로운 지상낙원으로 등장해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기암절벽과 부드러운 모래, 푸른 보석 같은 빛깔의 바다가 감탄을 자아낸다.

푸켓은 낮과 밤의 매력이 다르게 피어나는 곳이다. 낮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불야성을 이루는 파퐁 해변가에서 화려한 밤을 즐길 수 있다. 수많은 리조트와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거리와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는 클럽은 푸켓의 밤을 춤추게 한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인 쇼핑은 지난 9월에 오픈한 '센트럴 푸켓'에 맡기면 된다. 400개가 넘는 매장과 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켓이 한자리에 모여 시원하고 편안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설화수도 이곳에 푸켓 최초로 매장을 오픈해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과 푸켓 고객들에게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전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태국을 대표하는 휴양지인 푸켓에 지난 9월 대형 쇼핑몰인 '센트럴 푸켓'이 오픈했다. 400여 개의 매장을 비롯해 아쿠아리움, 공연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춰 푸켓 여행이 한층 더 풍성해진다.

Enjoy the Paradise of Your Dream

Phuket, the largest island in Thailand known as "The Pearl of Asia" with its emerald-blue ocean and shiny beach, is a world-famous place for vacation. It provides everything you have ever dreamed of. The Andaman Sea's picturesque beach, which spans 60 kilometers along the west coast of Phuket, will stay in your heart for a long time. The best time to enjoy the beautiful seas of Phuket is during the dry season, from November to February. Phuket's splendid jewels include the ocean, the high mountains and cliffs, and the breathtaking sceneries of different jungles and lakes. You could take a tour around Phuket's jewels on a speed boat as if it was a roller coaster. Among the most beloved places is the Phi Phi Islands, one of the six surrounding islands. The bizarre-looking cliffs, soft sand, and the blue, jewel-colored ocean will mesmerize you. Phuket blooms different charms day and night. You could enjoy the beauty of nature during the day and the bright neon lights of the Patong Beach at night. You could dance through the night at the many resorts, high-end restaurants and cafés, streets with live music, and clubs with young men and women from around the world. To experience the pleasure of shopping, you could check out 'Central Phuket' that opened last September. There are over 400 stores and local markets that depict Thailand as a major shopping hub in a cool, comfortable setting. Sulwhasoo opened its first store in Phuket to deliver the essence of Asian beauty to travel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local customers in Phu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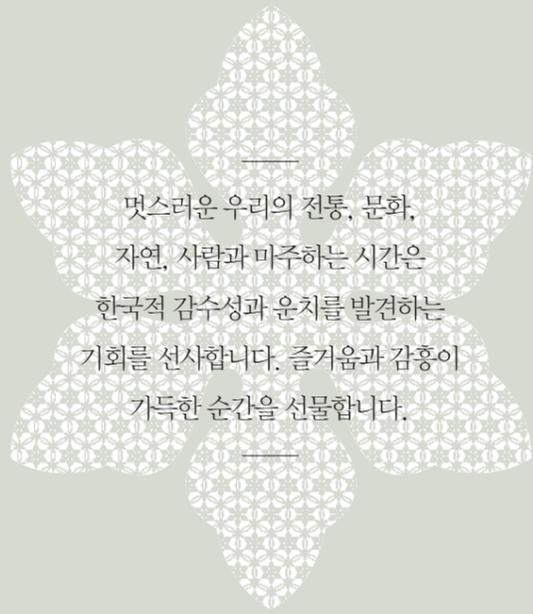
최고의 자리에서 선보이는 설화수의 기품

아름다운 미소의 나라로 알려진 태국의 화장품 시장은 5000억 원에 달하여 아세안 최대 규모이고 연간 7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중산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뷰티 제품과 정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설화수도 홀리스틱 뷰티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태국에서 총 20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그 명성과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중이다. 태국 고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늘 활기가 넘치는 설화수 태국 매장은 설화수가 진출한 아세안 5개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월급과 맞먹는 가격에도 설화수에 대한 태국 고객들의 사랑은 남다르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 10일에는 세계인이 꿈꾸는 휴양지이자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푸켓에 20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중심부에 새롭게 들어선 푸켓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인 '센트럴 푸켓'에 설화수 매장이 자리 잡아 아시아 뷰티의 품격과 진수를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설화수의 5세대 디자인 콘셉트가 적용된 매장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전하며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인삼을 비롯한 한방 원료를 전시해 설화수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태국과 푸켓 고객들을 매료시키며 그들의 맑은 미소를 완성하는 설화수의 변치 않는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S

지난 9월 '센트럴 푸켓'에 오픈한 설화수 푸켓 1호 매장은 5세대 디자인 콘셉트가 적용됐다. 설화수의 지혜가 담긴 한방 원료를 전시해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매화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상들리에에는 한국의 미감을 전한다.

The Dignity of Sulwhasoo at the Most Ideal Location

Thailand is a land of beautiful smiles, and its cosmetics market has reached 500 billion KRW, the largest in the ASEAN region. It is also recording a 7% growth each year. Sulwhasoo, as a global luxury brand that promotes the wisdom of Holistic Beauty, operates a total of 20 stores in Thailand to consolidate its reputation and foundation. Sulwhasoo's stores in Thailand are always full of energy with the love and attention of local customers, and earn the highest revenues among the five ASEAN countries where Sulwhasoo has opened business. Thus, the 20th store opened in Phuket, everyone's dream vacation resort and the leading tourist attraction in Thailand, on September 10th. It is located in 'Central Phuket,' the largest shopping center that recently opened right in the middle of Phuket, to spread the quality and essence of Asian beauty. The store, which boasts of Sulwhasoo's fifth-generation design concept, offers Korea's beauty and sentiments, and features premium Korean herbal ingredients, such as ginseng, to reflect the vision of Sulwhasoo and the diverse taste of its global customers. Sulwhasoo's unwavering voyage will continue to fascinate customers in Thailand, particularly in Phuket, and keep them smiling.



—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

가
리
다


나는 오직 현재에 존재한다
I Exist in the Present Only

Cho Sang Kyung

의상 디렉터 조상경

“욕망하는 게 없어요. 식욕, 물욕, 소유욕은 물론이고 성공이나 명예에 관련된
그 어떤 욕망도 가지지 않아요.” 조상경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
훗날에 대한 환상도 없다. 그의 의상은 시대를 넘나들지만 정작 자신은 오늘을 산다.
유일한 욕망이 있다면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한국 영화와 함께 성장하다

2002년 류승완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의 의상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까지 합쳐 영화만 80편, 얼마 전 의상으로도 화제를 일으킨 <미스터 션샤인> 등 드라마도 다수 작업했다. <미스터 션샤인>이 워낙 대작이고, 드라마 시스템 상 미리 제작에 들어갈 수 없어 예외적으로 한 편만 진행했지만, 평균 여덟 작품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무대 의상을 전공한 조상경 감독은 류승완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를 시작으로 영화에 발을 들였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영화 의상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대학 때 코스튬 관련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영화 의상을 공부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운이 좋았어요. 영화 의상은 처음 해보는 장르였는데 시절이 좋았죠.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의 분위기는 새로운 시도와 에너지가 넘쳤어요. 산업이 확장되기 전이라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죠. 한국 영화판을 잘 몰랐지만 그전에 외국 영화를 많이 본 경험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죠.”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봉준호 감독의 <괴물>,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 <타짜>, <암살>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 류승완 감독의 <썩패>, <베테랑>, <군함도>, 김용화 감독의 <미녀는 괴로워>, <신과 함께> 등 조상경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작품도 작품이지만 감독의 이름이 눈에 띈다. 조상경은 그들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며 성장했다.

Growing with Korea's Film Industry

She debuted in 2002 as the costume director of <No Blood No Tears>, a film by Director Seung-wan Ryoo. She has continuously worked ever since, with credits for 80 movies, including titles waiting to be released. She has also worked with a number of TV series, including <Mr. Sunshine>, which became a great hit a while ago with its sophisticated costumes. As <Mr. Sunshine> was a large project and she could not produce the costumes beforehand because of the structure of that TV series, she was exceptionally devoted to the project. However, she usually works on an average of eight pieces simultaneously.

Director Sang Kyung Cho majored in stage costumes and joined the film industry with <No Blood No Tears>. It is still not much different, but costume design was not clearly a category in the film industry at that time. She happened to take a course in costumes in college, but she said it feels embarrassed to say that she studied costume design for film-making.

“I was lucky. I was new to costume design for films, but it was a good time. In the early 2000s, Korea's movie industry was filled with new attempts and energy. It was possible to try various experiments, since it was before the industry expanded. I did not know much about Korea's movie industry, but I just did what I wanted to do based on what I had seen in foreign movies. For the last 16 years, I have built on my portfolio without taking a break.”





따로 또 같이

‘운 좋게’ 시작해 ‘다행히’ 좋은 사람들 만나 ‘그냥 한다’고 했지만 그가 일하는 방식은 철두철미하다. 시대극의 경우 최대한 고증에 충실하려 한다. 그래서 사전 조사에 공을 많이 들인다.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그 시기별로 복장이 다 달라요. 영화 <모던보이>는 1920~30년대였고 <미스터 션샤인>은 일본에 넘어가기 전 대한제국 시기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1, 2년 단위로 시대 정서나 느낌이 차이가 나거든요. 필요하다면 논문도 읽고 실록도 들여다봐요.”

그래서 조상경의 의상들은 손이 많이 간다. 대한제국 시절의 시대 복식을 재현하기 위해 패턴 연구까지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요즘 쓰지 않는 패턴이라 그 시대 옷답게 만들려면 패턴 연구부터 소재 선택까지 까다롭게 해야 한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들죠. 그래서 팀으로 일해요. 곰곰 스튜디오에 30명 정도의 인력이 있어요. 길게는 저와 십여 년 넘게 오래 일한 친구들부터 신입까지 다양해요. 제작 파트, 주로 현장에 나가는 워드로브 파트, 일러스트, 리서치 파트 등 세밀하게 인력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운영하는 곰곰 스튜디오는 조합의 형태를 지향한다. 그들 중 몇몇은 곰곰 소속이면서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 조상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일을 나눠서 하거나, 개인이 맡은 작품의 스케일이 큰 경우 곰곰 스튜디오와 협업을 해 일을 해결하는 식이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영화 의상 교육이나 인력 구성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으니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렇다고 후배들의 길을 막고 제일 위에 있고 싶진 않아요. 제 이름으로 일이 들어와도 함께 나누는 게 더 이상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욕심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Separate and Together

She describes herself ‘lucky’ and ‘fortunate’, since she is working with good people and ‘just doing her job without any specialty’, but she is highly strict and rigorous at work. In case of historical pieces, she tries to stick to the records as much as possible. That is why she takes her time doing preliminary research.

“Even during the Japanese Imperial Rule, there were different styles of costumes based on the time period. The movie <Modern Boy> dealt with the 1920s~30s, while <Mr. Sunshine> is about the Korean Empire right before it was lost to Japan. The historical sentiments and mood changed every year or two, therefore it require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I even look through some theses and books of annals when I need them.”

For this very reason, Cho’s costumes require many touches. She even studies the patterns to reproduce the costumes of the Korean Empire, which are not used in these days.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Gom Gom Studio has about 30 people. Some of them have worked with me for over a decade, while others are rookies.”

Her Gom Gom Studio is pursuing to become a union. Some of the employees work for Gom

기본적으로 팀 작업이니까요. 각각의 것을 하면서 '곰곰'이란 이름으로 작업실도 공유하고, 인력도 공유하고, 옷 창고도 공유하고 있죠. 함께 나누는 게 결국 상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매뉴얼을 수정하고 첨가하면서 조상경의 곰곰 스튜디오는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조상경 감독이 일을 하면서 시스템 외에도 공을 들이는 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부문이다.

“촬영용 의상은 화면에 예쁘게 나오는 '가짜 옷'이에요. 얼마나 잘 속이느냐가 관건이에요. 실용성과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만들 때 속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스튜디오는 갑옷을 다 종이로 만들어요. 그 위에 색을 입혀 가죽 느낌을 내죠. 중국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쉬운데 종이도 아무래도 재활용하기 쉽잖아요. 소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탄탄한 소재를 사용하면 재활용할 수 있고, 되도록 천연소재를 사용해요. 소각을 해도 천연소재 태울 때랑 나일론사를 태울 때랑 달라요. 비용은 더 나가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곰곰 스튜디오에 입사한 3년 차 직원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고민을 털어냈다. 조상경 감독은 “그게 뭐 걱정이니, 나는 지금도 없어.”라고 대답했다. 누가 계획을 물으면 그는 “노 플랜”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세운다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세상일이라는 걸 일찍 깨달았다. 그의 삶은 오늘이 전부다. 조상경의 손에서 ‘오늘’ 지어지는 어제와 내일, 실제와 허구의 옷들이 ‘매일’ 기대된다. 미래의 욕망 대신 현재의 공존을 택한 조상경 감독의 의상을 오래도록 보고 싶다.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S

Gom and run their own businesses at the same time. They share the projects consigned to Cho or collaborate with Gom Gom Studio for their individual projects.

Cho's Gom Gom Studio is seeking ways to co-exist by discovering the current issues and updating the manuals. Cho is also working on the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 systems.

“The costumes are ‘fake wardrobes’ that just look pretty on screen. The key is how well you deceive the eyes. It is far from practical. So we try to make deceitful things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For example, my studio creates all armors using paper. Then we apply color to make them look like leather. It is easier to use Chinese plastic, but paper is easier to recycle. This is the same with other materials, but firmer materials are easier to recycle and we try to use natural materials. Even when you incinerate, burning natural materials is different from burning nylon. It costs more, but I think that is the right way.”

When someone asks about her plan, she says, “No plan.” She thinks that everyone should follow their own lifestyle. She realized that nothing works out as planned at a younger age. Her life is all about ‘today’. Cho's ‘today’ makes out the wardrobes of yesterday and tomorrow and of reality and virtuality. Since all of us are living ‘today’, it makes her creation even special with bigger expectation.

헤어&메이크업 조원경(엔컴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로맨시크(02-3447-7701), 지고트(02-726-4502), 던트(02-3442-0220), 해수엘(02-508-6033), 레이첼룩스(02-6215-0070)



고이고이 피어난 온화한 공간

책장을 넘기면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와 종이 향은 마음을 고요하게 진정시킨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종이의 편안함 덕분이다. 종이로 만든 가구, 조명 등으로 집 안을 채우는 것 또한 감성을 일깨우고 잔잔한 휴식을 선사한다.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포근히 위로하는 종이로 가득한 집.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콜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대나무 살에 기름 먹인 한지를 발라 만든 한국의 전통 우산인 '지우산'은 윤규산 장인 by 예울, 2 핑크색 한지 모듈 조명은 유보영 작가, 3 바느질 패턴의 방석은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4 빈볼로 채워진 종이 커버 스톨은 Lazy Life-Paris by JangEe, 5 민트색 옷칠 주전자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6 한지로 만든 원형 함은 정대훈 작가, 7 옷칠 상판의 사이드 테이블은 유남권 작가 by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8 종이의 자연스러운 구김이 멋스러운 임체어는 Lazy Life-Paris by JangEe, 9 한지로 우아한 주름을 표현한 'Layers table Lamp'는 권중모 작가, 10 꿈과 여행의 단상들이 민화로 그려진 병풍 'Dreams and Traveling'은 서하나 작가.



왼쪽 페이지 1 붉은 동백꽃 액자 'Camellia'는 서하나 작가, 2 붉은색 사이드 테이블은 김준식 소반장 보유자와 백은 디자이너의 협업 작품 by 대한민국 명인명장 한수, 3 전통 기구 '반닫이'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한지 '소소장'은 모두 정대훈 작가, 4 거자색 옷칠 소반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5 컬러 유리 불이 포인트인 삼페인은 조현영 작가 by 아원공방 삼창점, 6 주황색 상판의 소반 도시락은 양병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7 한지 끈을 꼬아 엮은 지승공예로 만든 향아리를 담은 가방은 조명희 디자이너, 8 구리 소재 캔들 홀더와 천사 모양 캔들 홀더는 GEORG JENSEN by 라곰홍, 9 꽃 사이로 달빛이 드리워진 현상을 표현한 한지 소재 '월화' 조명은 리스커뮤니케이션

오른쪽 페이지 1 연잎 모양의 한지 트레이는 김현주스튜디오, 2 한지 합, 컵과 볼은 모두 심화숙 작가 by 전통한지공예가협회, 3 부드러운 가죽이 깔린 황동 소재 원형 트레이는 SKULTUNA by 라곰홍, 4 한지 소재의 컬러 테이블 매트는 황재욱 작가 by 아름지기, 5 나뭇잎 모양의 한지 접시는 김현주스튜디오, 6 흙의 질감이 살아 있는 백색 머그컵은 백경원 작가, 7 백자 찻주전자는 나채현 작가, 8 골드 컬러의 하프문 램프는 빛홍, 9 황동 소재 전통 문양 포크 세트는 허대준, 안이환 두석장 by 예울.



* 오른쪽 컬러 페인트 박은 단에드워드 DET464, 단에드워드는한전



일상의 가치를 드높이다

자연의 한 조각인 '한지'는 수려한 가구가 되기도 하고 포근한 향아리, 소담한 그릇이 되기도 한다. 매끄러움과 투박함, 질감과 유연함을 모두 갖춘 변화무쌍한 한지의 성질은 다양한 일상 공예로 쓸모를 찾는다. 숨 쉬는 종이인 한지를 겹겹이 대고 옷칠까지 더하면 가볍고 단단한 가구가 되고, 한지를 꼬아 만든 끈을 엮는 지승 기법은 어떤 형태로든 유연한 일상용품들을 탄생시킨다. 자연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삶을 원한다면 이보다 더 제격인 소재도 드물다.



생기를 더하는 종이의 화룡점정

한지와 종이 공예는 젊고 신선한 발상과 만나 가볍고 생기 넘치는 아이템으로 변신한다. 특유의 그윽하고 은은한 아름다움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모던하고 간결한 매력을 가진 종이 오브제는 자칫 무겁고 차가워질 수 있는 공간을 한결 산뜻하고 부드럽게 바꿔준다. 종이로 만든 소품 중 가장 쓰임새가 많은 건 조명이다. 빛을 은은하게 머금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공간을 아늑하고 따스하게 품어준다.

왼쪽 페이지 | 곤룡포를 걸었던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한지 '레이어즈' 조명은 권중모 작가. 2 꽃병에 싹씩서 사용하는 종이 꽃병 커버는 OCTAEVO by 라곰흙. 3 푸른 잉크 문양을 새긴 한지 화병 커버는 어글리베이스먼트. 4 화목함 가득한 집을 의미하는 한지로 만든 '만화옥' 조명은 장대훈 작가. 5 한지 창호문을 모던한 그래픽으로 재해석한 모빌은 하나두리스튜디오. 6 한지를 뜯 때 사용하는 대나무 발로 장식한 장은 권원덕 작가. 7 메탈 소재의 물고기 오브제는 MAGIS by 짐블랑. 8 한지와 삼베, 모시를 패턴화한 조명은 강민지 작가.

오른쪽 페이지 | 한지 문살을 디자인에 적용한 오크 4단 책장은 이승원 작가 by INHOO. 2 전통 문양을 새긴 한지 사각함과 한지를 뭉쳐 만든 볼 세트와 붉은 한지 형아리는 모두 심화숙 작가 by 전통한지공예가협회. 3 한지 바스켓 '바둑'은 유보영 작가. 4 한지를 오리가미 방식으로 접은 오브제는 소동호 작가. 5 십장생도 민화 족자는 오이뮤 by DDP 디자이너 갤러리 숲. 6 사방탁자의 짜맞춤 구조로 만든 단풍나무 의자는 권원덕 작가. 7 그레이 컬러의 종이 화병은 SERAX by 더 패브. 8 종이 소재의 DIY 플리곤 베이스는 스물긱팅스. 9 물결 무늬가 돋보이는 옷걸이 소반은 양병용 작가.



깊은 기억의 자리에 닿다

삶이 버겁던 어느 날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적이 있다. 고요한 숲속의 경건한 공간에서 시든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돌았다. 콘크리트 마감재와 조각처럼 다져진 세련된 건축물에 들어서면서 그때의 평온함이 떠올랐다. 오랜 세월을 이어온 옛 사찰을 닮기 원했던 건축가의 바람처럼 누구나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기억의 사원'이 경기도 가평에 자리 잡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민규암 토마건축사무소

고요하게 아로새긴 기억

숲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모든 기억을 품고 있다. 끝을 알 수 있는 그 포용력 덕분에 우리는 숲에서 치유하고 힘을 얻는다. 평온한 숲이 첩첩한 가평에는 넘치는 생각과 복잡한 마음을 너그럽게 안고 비워주는 '기억의 사원'이 있다. 마치 깊은 산중에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평안한 사찰처럼... 건축가는 한국 전통의 절이 간직한 공간의 흐름을 이곳에 담고 싶었다. '기억의 사원'은 일주문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문과 전각을 지나는 긴 걸음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옛 절의 공간을 닮았다. 이곳을 거닐다 보면 생각은 가벼워지고 기억은 아로새겨진다. 삼라만상, 잡다한 것들은 잊히고 마음은 단단히 머물어간다.





완벽한 탄력을 누리다

가장 완벽한 도향인 원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피부 탄력을 선사하는 자음생에센스는 설화수의 완벽한 인삼 헤리티지를 담았다. 뿌리부터 잎줄기까지 강인한 인삼의 생명력으로 피부 지지 구조를 탄탄하게 세우고 인삼의 잎과 줄기에서 찾은 진세노사이드 Rd 성분이 피부 구조 단백질을 채워 얼굴의 모든 각도에서 360도 입체 탄력이 차오른다. 설화수의 독보적인 인삼 연구 기술로 탄생한 진세니스피어™는 귀한 인삼씨 오일이 담긴 소프트 캡슐 제형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흡수된다. 자음생에센스 50ml 20만원

황동, 현무암 소재의 코스터는 서정화 작가 by 라이플로.

영롱하고 고귀한 품격

가을과 겨울 사이 피부는 유난히 힘들다.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에 주름과 노화를 부추기고 생기를 잃게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인삼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삼꽃과 뿌리에서 찾은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주는 자음생크림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깊은 보습을 선사할 것이다. 자음생크림을 바르기 전에 자음생페이셜오일을 먼저 사용하면 한층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의 힘을 발휘한다. 엄격하게 선별한 인삼 종자유가 함유된 자음생페이셜오일은 건조한 피부에 영양과 윤기를 부여하고 탄력을 채워 피부는 어느덧 영롱하게 빛난다. 자음생크림 60ml 25만원, 자음생페이셜오일 20ml 13만원

적동에 칠보를 입힌 볼은 김윤진 작가 by KCDF갤러리숍.



그윽하고 고운 금빛 열매

꿀은 임금이 귀하게 아꼈던 황금 같은 과일이다. 세종은 좋아하던 후궁에게 슬며시 꿀을 쥐어주며 사랑을 표현했을 정도다.
이제는 흔하디흔해졌지만 여전히 상큼달콤 사랑스러운 꿀 덕분에 겨울은 내내 맛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쏘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평면적인 회화 기법인 소묘를 입체 도자기에 집목한 화병과 볼은 조연에 작가의 작품.



향긋한 한 입 꿀 연어 부르스케타

재료

꿀 2개, 훈제 슬라이스 연어 5장, 적양파 1/4개, 크림치즈 3큰술, 마요네즈 1큰술, 슬라이스 바게트 10조각, 후춧가루 · 무순 약간씩

만드는 법

1 꿀은 껍질을 까서 가로로 1cm 폭으로 자른 다음, 반으로 잘라 반달 모양이 되게 한다. 2 훈제 슬라이스 연어는 반으로 썬다. 3 적양파 절반 분량은 다져서 크림치즈, 마요네즈, 후춧가루와 섞는다. 나머지는 얇게 채 썬다. 4 슬라이스 바게트는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7~8분간 바삭하게 구운 뒤 ③의 크림치즈를 바른다. 5 ④의 바게트 위에 꿀, 훈제연어, 채 썬 적양파, 무순을 얹는다.

다채로운 풍미의 향연

귤 살사소스를 곁들인 관자튀김

재료

관자 5쪽, 밀가루 1/2컵, 달걀 1개, 빵가루 2/3컵,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포도씨유·루콜라 적당량씩 (귤 살사소스) 귤 1개, 양파 1/4개, 빨강 파프리카 1/6개, 레몬즙 1/2개, 올리브오일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1 관자는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린 뒤 밀가루와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혀 포도씨유에 노릇하게 튀긴다. 2 귤, 양파, 파프리카는 작게 깎둑썰기한 뒤 볼에 담고 레몬즙, 올리브오일,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살사소스를 만든다. 3 접시에 튀긴 관자를 담고 귤 살사 소스와 루콜라를 얹는다.



품격이 가득한 테이블

귤 발사믹 소스 뼈등심 스테이크

재료

돼지 뼈등심 5쪽, 귤 3개, 그린빈스 10줄기, 포도씨유·소금·후춧가루 약간씩 (귤 발사믹 소스) 귤 3개, 발사믹식초 5큰술, 꿀 2큰술

만드는 법

1 돼지 뼈등심은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려 밀간한다. 굵은 반으로 썬다. 2 귤 발사믹 소스를 만들기 위해 껍질을 벗긴 귤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 체에 거른다. 냄비에 귤즙과 발사믹식초, 꿀을 넣고 절반 분량이 될 때까지 졸인다. 3 팬에 달걀 포도씨유를 두르고 뼈등심을 노릇하게 굽는다. 고기가 거의 다 익어지면 ②의 소스를 바르고 강한 불에서 졸이듯 굽는다. 4 달궈진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그린빈스와 귤을 구운 뒤 뼈등심 구이에 곁들인다.

달콤 향긋한 사랑의 맛
 귤 고르곤졸라 피자

재료

토르티야 2장, 피자치즈 1컵, 고르곤졸라 치즈 2큰술, 다진 마늘 2작은술, 귤 1개, 귤 마멀레이드 or 귤잼 2큰술, 씨겨자 1/2작은술, 다진 파슬리 적당량

만드는 법

1 토르티야 위에 피자치즈 절반 분량을 뿌리고 남은 토르티야를 위에 덮는다. 2 ①에 남은 피자치즈와 다진 마늘을 뿌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도 콩알 크기로 얹는다. 귤은 편으로 썰어 올린 뒤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6~7분간 노릇하게 굽는다. 3 귤 마멀레이드 혹은 귤잼에 씨겨자를 섞은 뒤 ②에 듬뿍 올리고 다진 파슬리를 뿌린다.



완벽한 마리아주
 귤 브리치즈 구이 & 귤 와인 콤포트

재료

(귤 브리치즈 구이) 브리치즈 1개, 아몬드 슬라이스 1작은술, 귤 6개, 귤 껍질 4개 분량, 설탕 1/3컵, 레몬즙 1큰술 (귤 와인 콤포트) 귤 4개, 귤 껍질 2개 분량, 팔각 2개, 시나몬 스틱 1개, 생강(3cm 크기) 1톨, 통후추 1/2작은술, 화이트와인 1컵, 물 1/2컵, 설탕 3큰술

만드는 법

1 귤 브리치즈 구이를 만들기 위해 분량의 귤은 소금으로 문질러 닦은 뒤 껍질을 잘게 채 썰고, 알맹이는 블렌더로 큼직하게 갈아 냄비에 붓고 설탕, 레몬즙을 넣어 중약불에서 멉니다. 2 브리치즈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얹어 180℃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간 굽는다. 3 구운 브리치즈 위에 ①의 귤 마멀레이드를 듬뿍 바른다. 크래커나 구운 바게트 등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4 귤 와인 콤포트를 만들기 위해 분량의 귤은 껍질 벗기고 알맹이를 1cm 두께 편으로 썬다. 귤 껍질은 얇게 채 썰고 생강은 얇게 편으로 썬다. 5 냄비에 귤 껍질과 팔각, 시나몬 스틱, 생강, 통후추, 화이트와인, 물과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멉니다. 시나몬 스틱이 벌어지고 향이 우러나면 불을 끄고 귤을 넣어 식힌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하며 먹는다.



여행이 건네주는
 “Happy Holiday & Happy New year!”

New York & Singapore

뉴욕 & 싱가포르

늘 순환하는 것이 계절이고 매해 여지없이 돌아오는 것이 연말인데, 이즈음만 되면 왜 마음이 싱숭생숭할까?
 아쉽지만 나름 찬란했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서터스톡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뉴욕 수천 개의 고층 빌딩이 이루는 끝없는 마천루의 야경은 황홀하게 아름답다.
연말을 보내는 시기에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전경이 아닐까

낭만적인 크리스마스를 보낼 최적의 도시로 손꼽히는 뉴욕, 이곳의 겨울은 센트럴파크에서 시작한다. 맨해튼 중심에 자리한 이 거대한 공원은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여 온통 새하얀 설원이 된다. 이 스트강과 허드슨강을 낀 섬 맨해튼은 유독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불지만, 눈이 소복이 내린 날에는 추위도 잊을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11월 말,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뉴욕 거리는 화려한 단장으로 분주하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5번가의 대형 백화점들은 매해 '바로 지금'을 위해, 일 년 동안 고민한다. 그 고민과 노력이 경쟁하듯 빛나는 시기. 헨리 벤델, 로드 앤 테일러, 메이시 등의 최고의 백화점이 내놓는 다채로운 쇼윈도 장식은 쇼핑을 즐기지 않는 사람조차 마음을 빼앗길 정도다. 록펠러센터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도 놓칠 수 없다. <나홀로 집에> 시리즈 등 수많은 영화에 등장할 만큼 뉴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트리는 높이 20미터, 폭 7.5미터 이상의 크기로 8킬로미터에 이르는 4만5000개의 전구와 꼭대기의 커다란 별로 장식된다. 올해는 11월 28일에 점등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되어 수백만 미국인이 동시에 시청하기도 한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열리는 마켓은 홀리데이 마켓 중 규모도 가장 크



New York has been voted the best city to enjoy a romantic Christmas. Its winter begins in Central Park. Located in the heart of Manhattan, this vast park is fully covered with snow in the winter. Manhattan is an island by the East River and the Hudson River, so it always hits you with cold winds. But it displays fantastic scenery after a snowy day.

The streets are busy decorating after Thanksgiving Day in the end of November, ushering in the Christmas season. The department stores in 5th Avenue have been preparing in the past year for 'this time' of the year. This is when their contemplation and endeavors are shining competitively. The colorful show window decorations of the best department stores, including Henri Bendel, Lord and Taylor, and Macy's, even mesmerize those who do not enjoy shopping. You cannot miss the gigantic Christmas tree at the Rockefeller Center. This New York symbol has been featured in numerous movies, including the <Home Alone> Series. It is over 20 meters in height and 7.5 meters in width, and is decorated with more than 45,000 light bulbs spanning nearly 8 kilometers in length and a mega-sized star on top. This



고 아이스링크를 즐길 수도 있어 방문할 만하다. 흥겨운 캐럴과 북적이는 인파에 섞여 맨해튼 한복판을 걷는 기분. 또 곧 다가올 또 다른 한 해가, 희망으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에서는 색다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바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다. 일 년 내내 여름인 싱가포르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축제가 펼쳐진다. 대표적인 변화기이자 싱가포르에서 가장 트렌디한 거리인 오차드 로드를 중심으로 열리는 '크리스마스 온 어 그레이트 스트리트(Christmas on a Great Street)'가 그중 하나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이 거리를 수놓는다. 해마다 다른 콘셉트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디즈니 월드를 테마로 환상적인 세계가 열릴 예정이라 한다.

파티를 즐긴다면 12월 24일 이곳 오차드 로드 거리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 파티가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면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크리스마스 무드로 가득하다. 또한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마리나베이에서도 매년 마지막 날 새해맞이 축제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황홀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흥겨운 라이브쇼와 남국 특유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밤에서 내년의 새로운 아침까지 밤새 이어지는 이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세계를 향해 인사하면 어떨까? "해피 뉴 이어!" S

Christmas tree will be lit on November 28th this year. The lighting ceremony attracts many people, and is aired live on TV for millions of Americans to watch. The Christmas market in Bryant Park is one of the biggest holiday markets, and you can also enjoy skating on the ice rink. How about walking down the streets of Manhattan amongst the uplifting carols and the crowd? For this reason, the New Year feels hopeful.

Singapore celebrates Christmas differently. Its Christmas is in the middle of summer. It is impossible to dream of a white Christmas because it is summer all year in Singapore, but its festivals are just as beautiful. One of them is 'Christmas on a Great Street' along the Orchard Road, which is the most popular and the trendiest street in Singapore. Bright illumination lights up the streets from November to January every year. It has a unique theme each year, and this year's theme will be the fantastic world of Disney World. If you love partying, the Christmas countdown party at the Orchard Road on Christmas Eve will create the best memory for you. The fireworks begin when the clock strikes midnight, and the air is filled with the Christmas mood, regardless of the hot weather. Marina Bay, the landmark of Singapore, also has a grand feast to celebrate the New Year every year. You can enjoy watching exciting live shows and many cultural activities by the breathtaking skyline. How about sending the season's greetings to the world in the middle of this festival, which lasts until the morning of the New Year? "Happy New Year!"

싱가포르의 연말은 축제의 한마당이다. 동양과 서양 옛것과 새것,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리고 한여름과 크리스마스가 뒤섞여 전혀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낸다.

오색 빛깔로 찬란하게 빛나다

좋은 사람들과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선물을 내놓을 수 없다. 설화수는 따뜻하고 찬란한 불꽃처럼 빛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주고받는 이의 마음이 모두 환해지는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은 더할 나위 없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퍼펙팅쿠션 SPF50+ / PA+++ (15호 / 21호 / 23호) PERFECTING CUSHION EX

섬세하고 촉촉한 커버로 결점 없이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설화수의 대표 쿠션 파운데이션인 '퍼펙팅쿠션'이 홀리데이 무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골드 컬러와 화려한 오색 불꽃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글로벌 밀리언셀러인 퍼펙팅쿠션은 간편하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순행클렌징워터와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립세럼 스틱 건본품 2종과 함께 홀리데이 세트로 구성된다. 15g x 2 6만5000원

윤조에센스 윤조지향&백화지향&홍서지향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First Peace & Gentle Blossom & Capturing Moment

설화수가 전통 항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구현한 다섯 가지 향을 적용한 윤조에센스 5대제향 중 세 가지 시그니처 향을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오리엔탈 허브 향을 베이스로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는 기존 설화수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와 더불어 기분을 맑게 해주는 매화 향이 담긴 윤조에센스 백화지향, 생기 넘치는 향이 기분을 북돋아주는 윤조에센스 홍서지향이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으며, 이들 제품들은 자음단™으로 피부 균형을 가꿔주고 향으로 마음까지 다스린다. 자음수, 자음유액, 탄력크림 건본품과 함께 세트로 구성된다. 90ml 12만원





여운오일-5 밸런싱 키트
SERENEDIVINE OIL 5-Balancing Kit

아름다운 설화수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다섯 가지 향의 페이스 오일인 여운오일을 모두 담은 홀리데이 컬렉션. 푸른 숲길의 청량한 향을 담은 청아지향, 봄의 매화 향이 생기를 전하는 백화지향은 감정의 진정과 정화를 도와주고 오리엔탈 허브 향은 감각을, 윤조지향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색으로 이끈다. 열매의 생기 넘치는 향인 홍서지향과 땅속 뿌리의 응축된 에너지를 향으로 표현한 흑여지향은 생기와 활력을 선사한다. 여운오일은 해송자유를 캐리어오일로 사용하여 흐트러진 피부의 균형을 잡아주어 피부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7ml×5 10만원



핸드크림
금윤향 & 백은향 & 홍과향
HAND CREAM
Gold Moment & White Breath & Red Intensity
설화수의 5대지향 중 세 가지 시그니처 향을 담은 핸드크림과 궁중비누 견본품으로 구성된 향기로운 핸드케어 세트. 은은한 매화 향을 품은 핸드크림 백은향은 궁중비누 매화와, 찬란한 빛의 고귀함을 담은 윤조지향을 담은 핸드크림 금윤향은 궁중비누 홍삼과 구성되고, 붉은 열매의 싱그러움 향 핸드크림 홍과향에는 궁중비누 살구를 세트로 담았다. 40ml 3만원



본 유 에 셴 스
INNER CHARGING SERUM

남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인 홀리데이 컬렉션은 설화수의 대표 남성 제품인 본유에센스가 주인공이다.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자생력을 높이고 노화의 근본부터 관리하는 본유에센스는 거칠어지기 쉬운 남성 피부를 윤택하게 다스린다. 핵심 성분인 다섯 가지 한방 성분을 복합 처방한 '정양단'과 인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름 대신 탄력을, 칙칙함 대신 활력과 생기를 더한다. 워터 젤 타입이라 스킨과 에센스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 남성 안티에이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홀리데이 컬렉션에는 본유유액과 리프레싱 클렌징폼 건보통이 함께 구성된다. 140ml 7만3000원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맘때면 아쉬움이 커진다. 안타까워하 기보다 남아 있는 시간에는 그간의 고마운 마음과 다가올 2019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 며, 사랑하고 감사한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과 함께 안부를 전하면 좋겠다. 주는 이의 진심과 정성 이 담긴 선물은 말로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까지 드러내 보여준다.

설화수는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엄선해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름답게 빛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은 패키지부터 남다르다. 밤하늘을 수놓은 오색 빛 갈의 찬란한 불꽃에서 영감을 받은 다채로운 패턴을 한국 전통 색감으로 그려 설화수의 품격에 걸맞은 동양의 감성과 미감을 표현했다.

화려한 불꽃의 향연과 함께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구성된 제품은 받는 이를 감동시킬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골랐다. 먼저 설화수의 밀리언셀러인 퍼펙팅쿠션은 불꽃 패턴을 제품 패키지에 적용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설화수가 새롭게 선보인 5대지향을 적용한 페이스 오일인 여온오일-5 밸런싱키트는 다섯 가지 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특별한 기회다. 5대 향 중 3가지 시그니처 향을 담은 기존 윤조에센스와 더불어 윤조에센스 백화지향, 홍서지향은 자음단™의 피부 균형과 마음을 다스리는 향의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5대 향 중 세 가지 시그니처 향을 담은 핸드크림 백은향, 핸드크림 금은향, 핸드크림 홍과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화수의 품격을 부담 없이 전해준다. 인삼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본유에센스는 남성에게 젊음을 선물한다. 다섯 가지 매력과 정성으로 선보인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은 2018년의 마지막과 2019년의 시작을 찬란한 감동으로 채운다. S

CELEBRATION OF FESTIVE5 HOLIDAY COLLECTION Sulwhasoo has carefully selected five products that make great gifts in Celebration of Festive5 Holiday Collection. It comes with a distinguished package design to reflect your beautiful, shiny heart. The colorful pattern inspired by fireworks in the sky has been painted with traditional Korean colors to express oriental sentiments and suitable aesthetics that represent Sulwhasoo's quality. The products for Holiday Collection have been carefully selected to tug at the hearts of your loved ones. First, Perfecting Cushion, Sulwhasoo's million-seller, comes in a limited edition with a fireworks pattern on the package. Serenedivine Oil-5 Balancing Kit is the special set of all five kinds of facial oils infused with Sulwhasoo's five new fragrance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Gentle Blossom, First Care Activating Serum Original, an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Capturing Moment with three of Sulwhasoo's five signature fragrances can provide the effect of JAUM Balancing Complex™ to ensure skin balance and spread the fragrances that comfort your mind. Likewise, Hand Cream White Breath, Hand Cream Golden Moment, and Hand Cream Red Intensity with three of Sulwhasoo's five signature fragrances demonstrate Sulwhasoo's quality at reasonable prices. Also, Inner Charging Serum with ginseng's powerful anti-aging effect offers youth to men's skin. The five charms and devotions of Celebration of Festive5 Holiday Collection fill the end of 2018 and the beginning of 2019 with heart-fulfilling splendor.



설화수 헤리티지를 만나는 아름다운 겨울 The Beautiful Winter Meets Sulwhasoo's Heritag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겨울을 맞이해 더욱 특별하고 화려한 새 단장을 준비했다.
설화수가 지닌 특별한 품격을 5대지향, 자음생 명작 세트, 실란 컬렉션 등의 테마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이번 겨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설화수만의 특별한 정수, 자연의 섭리와 생명력이 물씬 풍기는 헤리티지를 강조하며 더욱 새롭고 화려하게 거듭난다.

먼저 5대지향을 테마로 설화수가 전하는 향의 기록인 '향서香書'가 디지털 영상과 옛 서책, 즉 현대와 과거가 조합된 흥미로운 형태의 매체로 다시 태어난다. 또한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흥서지향, 흑여지향 등 자연과 옛 지혜로부터 온 다섯 가지 향이 다양한 오브제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든다.

한편 장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수공예 작품이 가득한 상징이 가득한 보자기와 만나 한정 출시된 설화수 헤리티지 컬렉션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VVIP 국빈 세트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소목장 조화신, 두석장 박문열 선생이 직접 제작한 고아한 공예 작품과 특별한 보자기로 이루어진 '자음생 명작 세트'를 실제로 보고 그 정성과 기품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발굴하고자 늘 노력해온 설화수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실란 컬렉션도 한눈에 볼 수 있다. 16년에 걸친 실란 컬렉션의 히스토리 스토리텔링은 물론 2018년에 새롭게 선보인 입사기법의 우아한 작품도 선보인다. 그동안 한국 문화 곳곳에 숨은 전통 무형문화재 장인, 작가와 함께 이룬 작품들로 채워진 고운 아카이브는 전통과 지금이 만나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창의와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다. S

This winter, Sulwhasoo Flagship Store will be transformed anew with broader glamour to emphasize Sulwhasoo's special essence, heritage, and the vitality of nature.

'HYANG-SEO', which records Sulwhasoo's five signature fragrances, will be published as digital videos and old texts in the interest of media to combine the past and the present. Also, the five fragrances from nature and traditional wisdoms—Forest Morning, Gentle Blossom, First Peace, Capturing Moment, and Inner Fullness—blend with various objects to create beautiful images.

On the other hand, the limited version of Sulwhasoo's heritage collections will be presented with handcraft pieces created by craft masters and wrapping cloth with the symbols of good fortune. Not only VVIP Luxury Set, but als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lassic Luxury Set created by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Jo Hwa-Shin (Somokjang) and Park Mun-yeol (Duseokjang) delivers the special sincerity and dignity.

Also, you could enjoy the art collaboration version of the ShineClassic Collection that reflects Sulwhasoo's efforts to discover beauty that transcends time. The 16-year history of the ShineClassic Collection has newly presented in 2018 by using an intricate traditional inlaying technique. The archive of the collaborative artworks is created with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artists throughout Korea, proving the diversity of creativity and the infinity of possibilities that can be achieved when tradition meets the present.



이번 겨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5대지향, 자음생 명작 세트, 실란 컬렉션 세 가지 테마로 화려하게 새단장한다. 설화수의 헤리티지와 현대적 미감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생생한 현장이다.

희망의 온기를 나누는 설화수 소식

경이로운 금박 이야기,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 - 금박展>

설화수의 문화 메세나 활동인 '설화문화전'이 10월 16일부터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에서 개최된다.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금박展>은 한국 전통 '금박' 예술을 재해석한 현대 작가 12팀의 신작과 금박 장인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설화문화전 웹사이트(www.sulwhasoooculture.com)에서 사전 예약 후 포춘랜드를 찾은 관람객들은 찬란한 금빛으로 길상의 의미가 담긴 금박 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테마파크로 구성된 공간에서 다채로운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한편, 설화수의 글로벌 캠페인 'Beauty from Your Culture'를 기념해 리미티드 에디션 윤조에센스와 퍼팩팅쿠션을 선보인다. 금박 무늬 중 귀하게 여겨지는 봉황무늬를 감각적으로 재해석한 제품 패키지와 파우치로 구성되며, 제품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전통 문화 보존 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홀리스틱 뷰티를 완성하는 설화수의 다섯 가지 향기

설화수는 향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몸과 삶을 다스렸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 향제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해 '향서종書'를 정리하여 그 다섯 가지 향을 윤조에센스와 여온오일에 담았다. 설화수의 5대지향은 청량한 숲의 향기인 청아지향, 우아하고 은은한 매화향인 백화지향, 은은한 빛과 투명한 공기의 조화로움을 담은 윤조지향, 탐스럽고 싱그러운 붉은 열매의 활기가 담긴 홍서지향, 생명의 근원인 땅속 뿌리에 응축된 에너지를 품은 흑여지향으로 구성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설화수의 향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감성을 일깨울 수 있다. 윤조에센스 컬렉션은 자음단™으로 피부 균형을 가꿔주고 다섯 가지 향으로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며 여온오일 컬렉션은 향산화 효능이 있는 해송자유와 함께 흐트러진 피부를 케어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다스린다. 윤조에센스 컬렉션 90ml 12만원대, 여온오일 20ml 8만5000원대



축제의 불꽃놀이처럼 찬란한 선물

설화수는 연말연시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찬란한 아름다움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을 한정 출시한다. 올해는 밤하늘을 수놓은 오색 빛깔의 화려한 불꽃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다섯 가지 전통 색깔과 다채로운 패턴으로 동양적인 미감을 표현했다. 이번 컬렉션은 퍼팩팅쿠션, 윤조에센스 5대지향 향서종書 컬렉션과 핸드크림 시그니처 향 3종씩, 여온오일-5 밸런싱키트, 남성 안티에이징 제품인 본윤에센스가 각각 미니 어치 제품과 함께 알차게 구성된다. 퍼팩팅쿠션 6만5000원대, 윤조에센스(윤조지향, 백화지향, 홍서지향) 90ml 12만원대, 여온오일-5 밸런싱키트 7ml×5 10만원대, 핸드크림(금윤향, 백은향, 홍과향) 40ml 3만원대, 본윤에센스 140ml 7만3000원대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계에 알리다

설화수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라인 제품인 자음생에센스가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 홍콩 IFC몰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설화수 뮤즈 송혜교와 할리우드 배우 다코타 패닝, 홍콩 국민 배우 유가령 등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를 비롯해 아시아 9개국 주요 언론과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해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로서 설화수의 위상을 알렸다.



CELEBRATION OF
FESTIVE5
Sulwhasoo



고마운 마음을 가장 고귀한 정성으로

연말 연시 금박 카드 만들기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 이제 또 한 해의 끝을 마주하고 있다.
 차분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연초의 계획을 살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검토할 때다.
 소중한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카드 한 장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도움 주신 곳 금박연 참고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차가운 공기의 결이 점점 두껍고 뽀족해지는 요즘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 특유의 허전한 마음은 파스함을 자꾸만 찾는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카드 한 장은 얼었던 가슴도 스르르 녹일 것이다. 어린 시절 색종이를 오려붙이고 반짝이 풀로 고심하며 장식한 크리스마스카드,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을 제일 좋아하는 친구에게 주며 마음에 들지 두근두근했던 순간이 생생하다. 모바일 메신저로 몇 초면 안부를 주고받고 수십 명의 단체에게도 똑딱 보내는 그 기능성이, 편리하지만 가끔 차디차다.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 이왕이면 가장 예쁘고 귀한 모습을 한.

크리스마스카드, 연하장의 유래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은 언제부터 주고받았을까? 15세기 독일에서 아기 예수의 모습과 신년을 축복하는 글을 담은 카드를 동판으로 인쇄한 것이 시초라고 전한다. 18세기 말에는 그림을 넣은 명함을 주고받는 새로운 풍습이 시작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나라

에서 이를 신년에 친지에게 보내는 인사장으로 사용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영국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카드를 주고받으며 축하와 신년 인사를 함께 인쇄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연하장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에게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 신년이 되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아랫사람을 시켜 문안 서찰을 보냈는데, 조선시대의 세함(歲函)이다. 새해가 되면 아전이나 교졸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관원이나 상관의 집에 보냈는데, 자신이 직접 가더라도 그 표적으로 명함을 남기는 게 관례였다. 또한 인사를 받는 쪽에서는 '세함상'이라 해서 부재 시 세배 온 사람이 명함을 두고 갈 수 있도록 상자를 마련하거나 손님이 자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세장(歲帳)과 벼루, 붓을 준비해두었다. 한편 양반집 아녀자는 문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초사흘이 지나면 자기 집 여종을 곁에 차려 입혀 일가친척이나 어른을 찾아뵙게 했는데 이 여종을 '문안비(問安婢)'라고 했다. 문안비들이 들고 다니는 단자에는 '소재(蘇才 : 소동파의 재주를 갖추라는 뜻), '곽복(郭福 : 곽자의처럼 부자가 되라는 뜻), '희자(姬子 : 왕희

금박이 가진 화려함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도 잘 어울린다.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이룬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이 시대를 가로질러 현대적 감각을 자아낸다. 빈티지 레터 오프너와 스탬프는 BURO. 나뭇잎 모양의 브라스 오퍼먼트는 펄리빙 by 짐블랑. 소프트 가죽이 깔린 브라스 소재의 원형 트레이는 SKULTUNA by 라곰홈.



전통 금박 공예 배우기

준비물 문양 도안, 문양 판, 금박지, 아교(접착제), 붓, 문양을 찍을 직물(비단)이나 종이(한지) 등
만드는 방법

- 1 원하는 문양을 그림으로 그려 도안을 만든다.
- 2 그린 도안을 나무틀에 다시 옮겨 그린 다음, 그대로 파서 문양 판을 만든다. 기존에 만들어놓은 문양 판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다.
- 3 문양 판 표면에 아교나 접착제를 얇게 바르고 마르기 전에 문양이 들어갈 대상 위에 찍는다.
- 4 문양을 따라 찍힌 아교 위에 금박지를 붙인다. 그런 다음 문양 바깥 부분에 있는 금박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면서 문양의 섬세한 선을 살린다.
- 5 건조한 후 금가루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뒷손질을 하여 완성한다.

금박연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금박장 김덕환, 김기호의 공방으로 전통 금박 공예 체험 및 금박연의 여러 금박 작업 전시물을 관람하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2길 24-12 문의 02-730-2067



처럼 자녀 복을 누리라는 뜻), '팽수(彭壽 : 팽조처럼 3000년 장수를 누리라는 뜻)와 같이 길한 문구를 적었다. 문안비를 맞이한 집은 세뱃돈과 세배상을 대접했고, 자기 집의 종을 문안비로 보내기도 했다.

반짝반짝 금박을 입은 연하장

조금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카드를 고민하다 섬세한 문양에 가장 고귀한 금을 입힌, 금박 공예로 연하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금박 공예를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는 북촌의 공방 금박연을 찾았다.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기술과 그 기술을 보유한 장인을 '금박장金箔匠'이라 부른다. 금박연의 전통 금박 공예는 1대 김완형 선생부터 현재 김기호, 박수영 부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조선 왕실 장인의 계보를 잇고 있다. 금은 화려한 광채를 가지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아 예부터 귀하게 여겼고, 고귀하고 호사스러운 장식에 주로 사용했다. 금박은 금편을 두드려 극히 얇은 상태로 만든 것 자체이자, 그것을 옷감 위에 올려 금문을 표현하는 작업까지 이른

다. 금박 문양은 복식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과거엔 사용자의 신분에서 문양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기도 했다. 부귀, 장수, 평안, 자손번창 등의 길한 의미를 갖가지 형태로 담아 문양을 도안했다. 금박 장식은 그 화려함만큼 많은 정성의 손길이 들어간다. 먼저 길한 의미를 담은 문양 판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교를 바르고 직물 위, 문양이 들어갈 위치에 찍는다. 이 아교가 마르기 전에 손으로 금박지를 위에 붙여 고정시키고 문양 바깥 부분의 금박지를 섬세하게 떼어내어 문양만 남게 한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금박을 고정하고 털어내며 섬세한 금빛 문양을 표현하는 작업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기법으로, 오랜 숙련과 함께 아교와 금박지의 물성을 이해하는 경험적 지혜가 필요하다. 본래 금박은 비단 등 직물에 주로 찍지만, 카드를 만들기 위해 한지 위에 올려보았다. 소박한 멋이 나는 한지의 특성이 우아하고 화려한 금박과도 맞출듯 잘 어울렸다. 금박연 선대 장인이 손수 만들어 대대로 전하는 문양 판이 찍어낸 것은, 시간을 쪼개어 쌓아 이룬 묵직한 지혜이자 우리 본연의 아름다움이었다. S

편병, 봉긋하면서 납작한 미묘함 Flat Bottle: A Convex yet Flat Delicacy

둥근 몸 양쪽을 지그시 누른 듯 납작한 모양. 위에는 주둥이를, 아래에는 굽을 달아 쓰임새 있게 만든 편병은
야외 나들이에서도 마른 목을 채우고 흥취를 더하던 물병이자 술병이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안대진·이용준 작가

두꺼운 평면인가, 납작한 입체인가? 편병은 일반적인 병과 다르게 몸통의 앞뒤 면이 편평한 형태인 것을 이른다. 물레질로 풍만한 병을 만든 다음 앞뒤를 두들겨 편평하게 하는데, 무조건 납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감을 살려 볼록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은 입체이기도 하면서 평면적 요소를 가지는 독특한 미감을 만들어낸다.

편병의 원형은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청동기에 제기로 쓰였던 도자기 중 편병이 있었는데, 우리의 것보다 화려하고 장식이 많다. 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납작한 편병은 북방 이민족에게 더욱 사랑받았는데, 유목민이 말안장에 싣기 수월했고 그들의 미감에도 더 맞았기 때문이다.

우리 편병의 역사도 길다. 몸체 한 면만 편평하게 만든 형태의 토기는 삼국시대부터 있었고 고려청자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편병이 보인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편병은 분청사기와 백자뿐 아니라 흑자로도 제작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통치이념으로 선택한 성리학의 예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물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편병도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백자철화대나무무늬 편병은 둥글고 납작한 형태의 백자 위에 산화철로 대나무 무늬를 그려 넣었다. 대나무는 철화 장식에서 즐겨 쓰인 대표적인 자연물이다. 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성질은 지조, 절개와 같은 유교적 덕성을 상징한다. 지극히 단순화시킨 대나무 문양이 소박한 백자의 질감과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에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조선시대 편병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안대진, 이용준 작가의 플랫폼 어라운드 도자 화병은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난 색다른 조형미와 기능성을 갖춰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S

A flat bottle, unlike an ordinary bottle, has a flat body. A round bottle is created on the spinning wheel, and its front and back are pounded to make it flat. It is not just flat, but it looks a little convex to achieve volume. This process creates a unique aesthetic for an object that is 3D with 2D characteristics.

The origin of the flat bottle can be found in China. A flat bottle was one of the porcelain vessels used in rituals during the Bronze Age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China. Through the era of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the flat bottle became popular among foreigners in the north because it was easier for nomads to carry it on the horse saddle.

Korea also has the long history of flat bottles. The earthenware with just one side of the body that is flat existed from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while Goryeo Celadon also included a new kind of flat bottle. By the time of the Joseon Dynasty, flat bottles were made as celadon with gray inlay, white porcelain, or black porcelain as they evolved into different shapes.

The white porcelain flat bottle with bamboo in iron inlay is a flat, round white porcelain with iron oxide inlay in the pattern of a bamboo. As it grows green and straight all year, it symbolizes the Confucian virtues of integrity and faith. The flat found porcelain vase of Artists Dae Jin An and Yong Joon Lee, inspired by the flat bottle of the Joseon Dynasty, presents a fresh brand of pleasure with its unique form and functionality beyond the typical.



백자철화대나무무늬 편병, 조선시대



Flat around vase, 도자, 안대진·이용준 작가



큰자귀는 기둥이나 보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쓰임에 맞게 다듬는 구실을 한다. 큰 집을 짓는 대목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연장이자, 대목수의 일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곳 운현궁에서도 큰자귀가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궁궐을 고치고 순간을 담는 일

대 목 수 · 사 진 가 정 명 식

생각보다 서늘한 기온에 눈부실 정도로 환한 햇볕이 마냥 반가운 날이었다.
한적한 운현궁에서 마주한 정명식 대목수는 긴 나무 자루가 달린 연장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날카로운 날 부분을 목장갑으로 잘 감싸 요령 있게 예코백에 넣어둔 그것의 이름은 '대자귀'라고 했다. 원래 이름은 '큰자귀'라고도 하는데 대목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장이자.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로 도끼나 톱으로 잘라낸 원목을 쓰임새에 맞게 다시 다듬는 구실을 한다. 크기에 따라 대자귀, 중자귀, 소자귀로 나뉘며 대자귀는 건물의 기둥이나 보를 다듬는 데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 큰 집을 주로 짓는 대목수가 아니라면 그다지 쓸 일이 없는 연장이기도 하다.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을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가져왔습니다. 외고조할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를 이어 대목수였던 외할아버지는, 외손주가 자신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무척 대견해하셨어요. 정작 본인의 아들들은 가업보다 다른 일을 택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연장을 모두 내려받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몇 채의 한옥을 지었지요." 정명식 대목수는 지금 문화재청에 소속되어 서울의 5대 궁궐과 왕릉의 각종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다. 무수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단단하고 우아하게 제 모습을 지키는 궁궐에 경탄한 적이 있다면, 그의 부지런한 손길도 거기에 한몫했을 터. 매일 아침 7시 궁궐에 입궐하여 끊임 없이 살피고 고치고 다듬는다. 대목수로서 궁궐에서 일한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라, 처음 궁궐로 출근하던 아침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아침 해가 막 뜨는 어슴푸레한 배경으로 궁궐을 찍었습니다. 첫 출근 기념으로 찍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의 의식처럼 되었지요. 사진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무리해서 마련하신 삼성 미놀타 카메라로 처음 만났어요. 대학 때 건축을 전공하면서 촬영 수업도

듣고, 답사로 방문한 전국의 절이나 고택을 프레임에 담았죠. 지금도 보수 작업이 끝나면 보고용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기는 늘 자연스럽게 함께였던 것 같네요." 궁궐을 관리하고 다듬는 목수이자 독특한 시선으로 궁궐을 담아내는 사진가. 그의 두 가지 업은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한다. 보수 작업으로 종묘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보이는 풍경은 사진가로서의 욕심을 부풀게 하지만, 부푼 그 마음을 다잡고 목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수의 일과 사진가의 일은 그렇게 선을 지킨다. 목수로서 그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진가로서 과감한 생략과 예리한 포착도 가능하다. "우리 궁궐, 우리 한옥은 자연스러워서 아름답습니다. 사정이 마땅치 않아서 구부러진 나무를 가져와 집을 짓고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 기둥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초라하지 않지요. 가능한 조건을 두고 궁궐 끝에 나온 그 해결책들은 생활과 가까운 독특한 미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편한, 그런 아름다운 입니다." 덕수궁의 긴 돌담을 지나거나 종묘 정전의 위풍당당함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이제는 궁 어딘가에서 푹푹탁탁, 찰찰찰갈 일하는 그의 풍경이 따라올 터이다. S





1 2018 설화문화전 <포춘랜드 - 금박展>의 근원이자 주축인 '금박연'의 작품, 홍원삼 紅圓衫, 김덕환, 2012
 2 놀이동산의 상징적 아이টে이템인 회전목마에 한국 전통 금박문양을 더해 과거의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는 축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작품. <시간이금이다 (Time Is Gold Is Time)>, 사운드스 X 서동주 X 이현태, 2018

경이로운 즐거움을 누리는 금빛 테마파크

'설화문화전'은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와 오늘을 아우르는 한국의 미의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설화수 고유의 문화 메세나 활동이다. 2018년 '설화문화전'이 한국 전통 금박 예술을 매개로 한 <FORTUNE LAND - 금박展>으로 돌아왔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2018년 설화문화전' <FORTUNE LAND-금박展>의 테마는 '금박'이다. 한국의 전통 금박 예술을 중심으로 전통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공간, 그래픽, 오브제, 패션, 만화, 미디어, 사운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가 12팀이 금박 예술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의 신작을 선보이는 동시에, 화려함과 우아함의 극치를 이루는 금박 장인의 원본 작품 3점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 금박 예술의 미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아름답게 꾸민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복과 운을 바라는 '길상吉祥'의 의미를 조명한다. 이번 '설화문화전'의 타이틀인 '포춘 랜드'는 그 자체로 테마파크, 놀이동산이다. 서양 모더니즘 건축과 달항아리와 한옥 등의 한국적 요소가 결합하여 동서양의 미감과 정서로 가득한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가 이 전시의 공간이자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감각적인 기쁨과 함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지적인 아름다움도 함께한다. 그리하여 단아하게 정제된 공간 안에 펼쳐지는 활력 넘치는

동적 전시 분위기와 다채로운 감각의 창조적인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은 관객에게 커다란 즐거움과 추억을 안겨준다. 또한 동시대 작가가 내놓은 독창적인 예술 언어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인의 경탄스러운 솜씨는, 전통 예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끼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전통 금박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박연은 조선 철종 시기 이래 5대를 이어오는 전통 금박공예 공방이다. 김기호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전승자와 박수영 금박장 이수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시에 선보이는 금박연의 작품은 <홍원삼紅圓衫>과 <면사面紗 1, 2>다. 원삼圓衫은 통일신라시대에 전래되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식·제도 면에서 국속화하여 오늘의 원삼이 된 것이라고 전한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내·외명부內外命婦의 여성용 대례복 중 하나이며, 그중 금박으로 시문된 원삼은 왕실용이다. 붉은색의 홍원삼紅圓衫은 왕비의 범복으로 그 예법대로 순금으로 봉황을 시문하고 금박 용 보를 달아 권위를 더했다. 한편 면사面紗, 면사보面紗褙 혹은 면



사포면紗布는 머리부터 온몸을 덮어쓰는 사각 보자기 모양의 사포를 뜻한다. 조선 후기에 면사는 법복法服에 속하여 예장용禮裝用으로 주로 쓰였다. 궁중용 면사는 홍색, 자색, 남색, 흑자색 등의 사각형 보자기로, 비·빈의 가례 등 예식용 법복에 사용했으며, 다양한 문양을 금박으로 시문했다.

금박연의 전통 예술에 영감을 받은 12팀의 작품도 모두 흥미롭다. 우선 전시장에 들어서면 금빛으로 빛나는 카펫이 맞아준다. 아티스트 프루프(Artist Proof)의 <복(福)길>은 권위와 염원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금박 문양을 패턴화하여 카펫으로 제작했다. 제목 그대로 전시장으로 들어오며 작품 위를 걷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과 운을 염원한다.

사운드스, 서동주, 이현태가 협업한 <시간이 금이다>도 강렬하게 시선을 끈다. 놀이동산의 상징적 아이টে미자 서양의 대표적 놀이기구인 회전목마에 다양한 금박 문양을 적용하고, 동양적 정서를 표현한 왈츠풍 BGM과 결합했다. 회전목마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시간에서

금까지 이어지는 시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서 그와 결부된 전통적, 현대적 그래픽을 창조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축제의 시간을 표현했다.

씨오엠(COM)은 카니발 게임을 모티프로 <행복행복>을 선보인다. '幸福(행복)'이라는 한자어를 조형적으로 단순화 구조물을 통해 제작한 부스다. 관람객이 부스에 배치된 공주머니를 조형물의 구멍으로 던져 넣어 점수를 매기고, 성과에 따라 경품을 타는 방식의 관객 참여형 작품이다. 게임을 통해 관람객에게 복을 바라는 길상의 의미를 전달하며, 동시에 경품을 통해 행운을 얻어 가는 재미를 안겨준다. 푸하하하 프렌즈(FHHH Friends)의 <금까기>도 탄성을 가진 구조체에 샌드백을 설치한 펀치 게임이다. 관람객이 샌드백을 두드릴 때 샌드백의 위치는 물론 구조체의 형상까지 변화하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탄성으로 리듬을 타는 모양이 흥미롭다. 액운을 쫓는 마음으로 펀치를 날리며 길상의 의미도 간접적으로 체험토록 했다. 또한 둘셋의 솜사탕 부스 <허니테일 하이브>도 테마파크의 분위기를 한껏 고



1 권위와 염원을 상징하는 다양한 금박문양을 패턴화하여 제작한 카펫 작품. <복(福)길 (Fortune Road)>, 아티스트 프루프 (Artist Proof), 2018
2 관람객이 부스에 배치된 공주머니를 금박 조형물의 구멍으로 던져 넣어 점수를 매긴 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복을 바라는 길상의 의미와 재미를 담았다. <행복행복>, 씨오엠 (COM), 2018



설화 문화 전
FORTUNE LAND - 금박展

기간 2018년 10월 16일(화)~12월 14일(금)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아모레퍼시픽 그룹 본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관람 신청 '2018 설화문화전'은 사전 예약제 우선으로 운영된다. 설화수 홈페이지(www.sulwhasoooculture.com)를 통해 사전 예약 후 1층 안내 데스크의 '설화문화전 티켓 부스'에서 전시 참여를 위한 입장 밴드를 소지해야 전시장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조시킨다. 금박의 섬세하고 정교한 선적인 요소와 아름다움, 설당을 실처럼 가늘게 뽑아 만드는 솜사탕의 물질적, 촉각적 특징을 뒤섞고, 동양성과 '판타지'가 만나는 공간을 구현한다.

광코믹스와 부흐의 <포춘카드> 시리즈는 전통 금박 예술과 대중문화인 만화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선보인다. 개성 있는 그림체와 만화적 내러티브로 시각적 재미를 선사하고 동시에 금박 문양의 기원도 전한다.

문 리(Moon Lee)는 <골드 블라썸>으로 금박 문양의 화려하고 정교한 특징을 담은 예복과 이브닝 웨어 세 점을 통해 상상 속 한국 여왕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C-ZANN E 역시 우리 전통 모시 원단과 금박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 점의 의상을 디자인했다. 문양, 소재, 기능과 디자인 등 전통과 현대가 다각적으로 마주하는 작품이다.

한편 서스테인 워스가 찍은 금박연 다큐 아트 필름 <금빛 너울>은 영상 매체를 통해 전통 금박 작업의 미학을 탐구한다. 오랜 시간 대대로

전해진 금박연의 전통 금박 제작 과정을 이미지와 소리를 통한 감각적 방식으로 관람객에게 전달한다. 왕실의 번영과 고귀함, 나아가 한 나라의 권위를 예복에 새긴 금박의 아름다움과 장인의 손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전통이 압축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해비턴트의 미디어아트 작품 <장승>은 예로부터 마을 초입에서 경계와 지표, 그리고 수호의 역할을 수행하던 '장승'과 상점 앞에서 춤을 추는 풍선 모형을 결합해 전통적 애니미즘과 현대적 키치의 충돌을 시도했다.

이처럼 2018년 '설화문화전'은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와 관객 참여형 전시 기획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전통의 창의적 전승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 동서양 문화의 교류 그리고 옛것과 새것의 조화와 같은 개념들을 뒤섞으면서, 염원과 행운이 가득한 놀이동산 포춘랜드가 완성되었다. 찾아가 즐겁게 한바탕 누리면 그만이다. S

1 <금까기>, 푸하하프렌즈(FHH Friends), 2018 2 <히니테일하이브(Honeytail Hive)>, 둘셋 (twothree), 2018

3 <골드 블라썸(Gold Blossom)>, 문 리 (Moon Lee), 2018 4 <장승長柱(Jangseung)>, 해비턴트 (Habitant), 2018 5 <포춘카드>, 광코믹스 (Quang Comics) X 부흐 (buch), 2018

복된 마음으로 새긴 우리 무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일상에서 손이 자주 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예스러운 느낌 때문에 주저했다면 전통 문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풀어낸 아이템에 주목하자.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전통이 깃들고 단아한 아름다움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듬뿍 담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부로 드 플로디아)



나비와 꽃, 구름과 학 등 다양한 전통 문양 패턴과 노리게 장식이 어우러진 클러치백, 캐시랑.



부부 금슬과 소원 성취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을 화려한 칠보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순은 소재 브로치, 피란 by 해브빈서울.



궁궐이나 사대부 집의 문실에 활용된 '이지문'과 평온을 염원하는 '길상문'을 현대적인 느낌의 패턴으로 재해석한 스카프, 커런트무드.

옛사람들은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문양에 담아 일상생활 곳곳에 새김으로써 좋은 기운을 얻었다. 지금으로 치면 그래픽이나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의복, 신발, 장신구, 그릇은 물론 가구와 건축물, 먹을거리에도 문양을 새겼다. 식물, 동물, 산수, 기하, 문자 등 무늬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의미도 각각각색이다. 가장 대표적인 십장생 문양은 학, 거북, 시슴,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돌, 불, 구름, 해 등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 장수와 평온,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오래 살라는 의미의 '수壽'와 복을 받기 바라는 '복福', 기쁨을 두 배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쌍희囍' 등은 대표적인 길상문자다. 매화는 꽃잎이 다섯 장이라 오복을 상징하며 연꽃은 형제애와 많은 자손을 갖기를 소망하는 문양이다. 나비는 부부의 좋은 금슬을 상징해 혼례 의상이나 이불깃 가구 장식에 자주 사용되었다. 용과 봉황은 왕과 왕비를 상징하며 고귀한 신분을 표현했다. 부귀와 장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상서로운 마음, 간절한 조형미는 잊혀도 좋을 옛것이 아니다. 선조들이 전해준 전통 문양의 가치를 몸에 지닐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일상의 멋도 챙기고 그 안에 담긴 소망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자. S



오복을 가져다주는 길상 동물인 박쥐를 칠보 기법으로 새긴 쌍가락지, 피란 by 해브빈서울.



조선 후기 화가 남계우의 민화를 모티브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풍성한 모란꽃을 담은 우산, 오색찬란코리아.



연꽃 잎을 여러 장 포개어 문양화한 '보상화문' 패턴을 모던하게 표현하고 한복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우아하게 디자인한 토트백, 커런트무드.



전통 목가구를 꾸미거나 개폐용으로 달았던 나비 문양 장식이 브로치로 다시 태어났다. 유은정 작가 by 모멘트 오브 어스.



경복궁의 단청초 문양을 새겨 한지를 압축해 만든 우아한 브로치. 비나 눈에도 쉽게 상하지 않는다. 미츠 by 해브빈서울.



아름다움을 염원하는 꽃문양을 자개로 수놓은 물푸레나무 손거울, 아리자안.



복을 부르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의 신비한 동물이었던 용이 그려진 폰 케이스, 오색찬란코리아.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꽃무늬를 금실로 수놓고 진주로 장식한 '진주낭'의 미니어처로 휴대폰을 장식하거나 브로치로 사용할 수 있다. KCDF갤러리숍.



꽃 중에 가장 호화롭고 아름다운 꽃인 모란은 부귀, 영화, 행복한 결혼을 의미한다. 분홍빛 모란꽃으로 빼곡히 채운 슬더백은 핫 컬렉션.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5대지방 컬렉션
 ● 윤조지방 ● 청아지방 ● 백화지방 ● 홍서지방 ● 흑여지방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균형을 맞춰주는 자음순™이 건강한 피부유지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스 라인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퍼 밀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동일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꼭 찬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메이론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증기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주는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스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합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합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산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불어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크리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적층 성분이 즉각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층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층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날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층 성분과 글든아미케아 미사치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날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날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층과 송이 생명력으로 한결 깊은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날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함유된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결 정리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수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디자이너
 150ml | 75,000원대

다함설에센스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다함설크림
 매화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소프트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설린크림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소프트 타입 팩
 50ml | 90,000원대

설린스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스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수울 라인

수울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청운함을 주는 수분 진정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울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울스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스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홀리스틱 케어

에센스본앰플
 천사와 홍삼이 합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시는 홍삼 앰플
 20g x 30 | 17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트 성분과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지친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 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삼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자막 아몰리케이티와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주는 브라이팅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날팩
 백삼 성분을 담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몰루신 미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음선 라인

음운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소프트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퍼밍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어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유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안팩
 옥의 기운을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여운 라인

여운오일 5대지방 컬렉션
 ● 청아지방 ● 백화지방 ● 윤조지방 ● 홍서지방 ● 흑여지방
 천연 한방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스킨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방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프&리치 타입 페이스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

스페셜 라인

영의본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을 잡아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앰플
 8ml x 4 | 20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갈라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 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g(패치) | 200,000원대

에빛크림
 빛 결 윤으로 육아자존을 밝혀 하루 종일 물결 있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들 성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국 당귀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고아 라인

탄력크림
 자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8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지
 얼굴과 목, 바디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지바디케어 크림
 240,000원대

고아크림
 메사단™이 처진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고보습 리프팅 크림
 60ml | 120,000원대

고아앰플에센스
 메사단™과 마고 추출물이 피부를 윤곽하게 가꾸는 고영양 데일리 앰플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클렌징 라인

중중비누
 홍삼인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얇게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400ml | 63,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MEN

리프레시클렌징폼
 천연 피부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겸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필락싱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호르몬이 부족해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동백유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지방 컬렉션
 ● 청린향 ● 백은향 ● 금운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이프 & 리치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

바디 & 헤어

메이크업밸런서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퍼플
 3호 라이트 그린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수분, 피부 톤·톤·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엄 베이지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컨실러 스틱
 1호 미디엄 핑크
 2호 미디엄 베이지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질감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쿠션
 11호 포슬린 핑크
 13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25호 샌드(베이지)
 27호 하니(핑크)
 27호 하니(베이지)
 27호 연(베이지)
 27호 연(베이지)
 11호 베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라이트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11호 베일 핑크
 13호 라이트 핑크
 17호 라이트 베이지
 21호 미디엄 핑크
 23호 미디엄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25호 딥 베이지
 33호 다크 베이지
 1호 스킨 화이트
 1호 레디엔드 핑크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려 지속되는 가볍고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연 추출물이 희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되어 방금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시 파우더
 8g | 65,000원대

멀티 쿠션 하이리터
 피부에 생기 불륨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리터
 8g | 40,000원대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 11호 포슬린(핑크)
- 15호 아이보리(핑크)
- 17호 아이보리(베이지)
- 21호 내추럴(핑크)
- 23호 내추럴(베이지)
- 25호 샌드(핑크)

에서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자정 메이크업

- 1호 화사한 색
- 2호 자연스러운 색

진설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 21호 은은한 색
- 23호 차분한 색

레이디스 블러셔

- 1호 핑크 하모니
- 2호 코랄 하모니

립

- 1호 애플리웃 세럼
- 2호 블라썸 세럼
- 3호 플라워 핑크
- 4호 로즈 레드
- 5호 블라썸 코랄
- 7호 딥 베리
- 9호 글로우 오렌지
- 10호 비비드 핑크
- 11호 레디언트 레드
- 12호 소프트 오렌지
- 38호 사들 핑크
- 59호 아텀 레드

아이브로우

- 3호 라이트 브라운
- 2호 예시 브라운
- 34호 딥 브라운
- 75호 다크 그레이

실란 컬렉션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윤조에센스 랜틴컬렉션

자음수 랜틴컬렉션

자음생유액 랜틴컬렉션

자음생크림 랜틴컬렉션

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틴컬렉션

퍼펙팅쿠션 인텐스 랜틴컬렉션

에센셜 밤

딥 릴렉스 밤

립 틴트 밤

공중비누 - 소나무

공중비누 - 홍삼

공중비누 - 살구

공중비누 - 매화

윤조지향 향초

매화지향 향초

윤조지향 포푸리

매화지향 포푸리

매화지향 향유

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홍삼발효차

매화차

세차

삼다연 제주영굴



강력한 웃음폭탄이 터진다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한 해의 마무리와 2019년의 시작을 큰 웃음과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코미디 뮤지컬의 열풍을 예고하며 국내 첫 공연을 준비하는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과 함께 연말연시를 유쾌하게 보내자. 화려한 캐스팅도 더할 나위 없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이 국내 초연된다. 작품의 배경은 190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이다. 가난하게 살던 주인공 '몬티 나바로'가 실은 고귀한 다이스크워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번 공연은 유쾌한 내용도 기대되지만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화려한 캐스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극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자 수려한 외모와 재치를 겸비한 인물인 '몬티 나바로' 역은 '신화의 김동완'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여심을 뒤흔들었던 유연석, 뮤지컬 스타 서경수가 맡았다. '다이스크워스' 역에는 오만석, 한지상, 이규형이 캐스팅되었는데 무려 9명의 '다이스크워스' 가문 상속자들을 보여주어야 하는 만큼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다.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작품성과 화려한 무대, 멋진 배우들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2018년을 열심히 살아낸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임에 틀림없다. 일시 11월 9일~2019년 1월 27일 장소 홍익대학교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2-3485-8700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8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뮤지컬 〈1446〉



세왕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1446〉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인간 이도를 뮤지컬로 풀어내며 감동을 선사한다. 300벌이 넘는 화려한 의상과 더불어 해금, 대금 등의 전통악기와 현대악기의 조화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음악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시 12월 2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문의 02-588-7708

전시 〈조선, 병풍의 나라〉



조선시대에 제작된 다양한 병풍 76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궁중과 민간에서 제작하고 사용된 병풍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는 동시에 다양한 그림 속에 담긴 다채로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미학이 펼쳐진다. 일시 12월 23일까지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문의 02-6040-2345

전시 〈김홍도 Alive: Sight, Insight〉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화가로 손꼽히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과 생애를 매력적인 미디어 아트로 선보인다. 잘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 작품인 〈행려 풍속도 8곡병〉을 비롯해 총 114점의 김홍도 작품을 활기 넘치는 미디어 아트로 부활시켜 18세기 후반 조선의 생활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일시 2019년 2월 24일까지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문의 02-511-0507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여은오일 윤조지향 (5명)

설화수가 자연에서 얻은 아름다운 5대지향 중 오리엔탈 허브 향으로 생명의 감각을 일깨우는 윤조지향을 담은 밸런스 오일입니다. 귀한 한방 성분과 해송지유를 함유해 흐트러진 피부를 되살리고 향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관람권 (3명)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뛰어난 작품성과 화려한 무대 연출, 초특급 캐스팅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국내 초연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의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티켓 수량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8년 1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여은오일 윤조지향, 뮤지컬<젠틀맨스 가이드:사랑과 살인편>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9년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8년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자음생에센스(5명)

- 류순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이명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이선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 이영애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 허윤아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관람권(2명)

- 박현욱 서울시 강서구 공향대로
- 김윤정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1길

2018년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가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잎까지 인삼에너지가 담인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몸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여운오일 윤조지향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 사랑과 살인편>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1/12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강원도, 충청도**
-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9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